

KAIST 경영대학 개원 20주년 비전선포식

개원 20주년,
KAIST 경영대학은 이제 스무 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개척해 온 미래는
이미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발자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20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제나 시대를 앞서 두드려 온 또 하나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함께 저희의 미래를 빛내 주십시오.

일시

2016. 4. 8 (금) 16:00

장소

KAIST 서울캠퍼스 1호관 대강당

KAIST

COLLEGE OF BUSINESS

Frontier

Vol.23 No.4

2016 WINTER

KAIST 경영대학



SPECIAL ZONE

경영대학의 청사진을 그리는 김동석 학장을 만나다

20주년을 맞이하는 KAIST 경영대학

INSIGHT ZONE

KAIST 경영대학 20년사를 백서에 담다
KAIST 경영대학이 걸어온 길

KAIST 경영대학의 역사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사이버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스무 살 KAIST 경영대학이 써 내려간 역사를
20돌 KAIST 경영대학 10대 발자취

KAIST 경영대학의 설립과 성장을 지켜보며
KAIST 경영대학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공간들

KAIST 경영대학
COLLEGE OF BUSINESS

Frontier Contents

2016 Winter

04



SPECIAL ZONE

- 04** 경영대학의 청사진을 그리는
김동석 학장을 만나다
- 06** 20주년을 맞이한 KAIST 경영대학!

10



INSIGHT ZONE

- 08** KAIST 경영대학 20년사를 백서에 담다
KAIST 경영대학이 걸어온 길
- 09** KAIST 경영대학의 역사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사이버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 10** 스무 살 KAIST 경영대학이 써 내려간 역사들
20돌 KAIST 경영대학 10대 발자취
- 12** KAIST 경영대학의 설립과 성장을 지켜보며
- 14** KAIST 경영대학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공간들

18



GLOBAL ZONE

- 16** 스위스 교환 학생기
2015년 스위스 HEC Lausanne
교환학생 후기
- 18** 홍콩에 찾아온 할로윈 데이
KAIST 경영대학 할로윈 네트워킹 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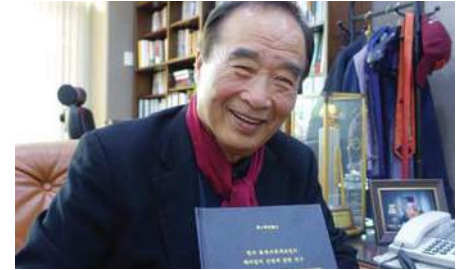
25



POWER ZONE

- 20** 즐거운 상상을 하는, 테크노MBA 1기 졸업생
김홍수 동문을 만나다
삼양식품 글로벌사업부문 사장(前 동방 CJ 사장)
- 22** 박원순 서울시장, 청년 창업가들과 고민 나눠
- 23** 2015 KAIST 금융인의 밤 개최
- 24** KAIST 경영대학 가족들의
따뜻한 온기를 느낀, 한혈의 날
- 25** KCB 우리홍릉 예체능,
2015 KAIST 경영대학 체육대회
- 26** KAIST 경영대학,
20주년 앞두고 Homecoming Day 개최
- 28** KAIST 경영대학 인터넷 방송
- 29** 멘토와 멘티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 30** 문화체험+정보공유+네트워킹
= KAIST-HR Collaboration Day
- 32** 제2회 서울 기후-에너지 콘퍼런스를 통한
5대 권고안 발표

42



INSIDE ZONE

- 34** SM 엔터테인먼트와 매뉴얼의 기술
(Art of Manual)
- 36** KAIST 경영대학 홍보소식지 Frontier 변천사
- 37** 제2회 KAIST 경영대학
2015 Case Competition 대상 수상
- 38** BOOK REVIEW
- 40** KCB News

ALUMNI ZONE

- 42** 동문 소식
- 43** 발전 기금

Frontier 21기 학생기자단

김성태	경영공학	석사	blue@business.kaist.ac.kr
안재홍	테크노경영	석사	a1101083@business.kaist.ac.kr
유희찬	경영공학	석사	yoohc1990@business.kaist.ac.kr
윤성민	정보미디어	석사	sy09334n@business.kaist.ac.kr
이새봄	테크노경영	석사	saebomlee@business.kaist.ac.kr
정지현	테크노경영	석사	md23@business.kaist.ac.kr
최소영	경영공학	석사	csy5768@business.kaist.ac.kr

경영대학의 청사진을 그리는 김동석 학장을 만나다



KAIST 경영대학이 이제 미성년자를 벗어나 스무 살 성인이 되었다.

그 동안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베테랑 같다는 극찬을 받아왔으나 이제 더욱 깊고 넓은 바다에서의 새로운 항해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 학교의 초창기 멤버이자 이제는 우리의 대항해를 이끌고 있는 선장 김동석 학장을 만나 얘기를 나눠 보았다.

Q 학장님께서 경영대학의 설립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초창기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 'KAIST 경영대학'은 처음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발전을 했고, 10년마다 새로운 도약을 해왔어요. 처음 10년은 국내 최초의 전일제 MBA프로그램을 여러 개 만들어 내실을 다져왔고, 그 다음 10년은 국제화에 대한 노력을 해왔어요. 그 결과, 요즘 외국에 나가서 느끼는 것은 우리 대학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학장들도 우리의 성장이 대단하다며 감탄하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부동의 위치에 있어요.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직원, 학생 모두의 열정이 응집된 결과라고 봅니다.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1996년 경영대학 설립 초기에는 열정이 넘쳐나는 조직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 통계 강의가 종강할 때 담당 교수님은 학생의 1/2정도가 충분히 실력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학생들에게 F를 주고 끝나기 마련인데, 이 교수님께서는 I학점(Incomplete)을 일단 주고, 한 달간 추가로 강의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키워놓고 Pass를 시켰어요. KAIST 경영대학에서 배출한 인제는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성장시킨 것이지요. 우리 학교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는 다른 대학이 모방할 수 있지만 이런 '열정' 같은 웹웨어(Webware)는 따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조직의 규모가 커져도 처음의 이런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Q 경영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것입니까?

경영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배우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를 양성하는 것에서 전문성이 있는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를 키우는 것이 전 세계적인 변화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전체 교육 프로그램 포트폴리오를 다시 검토하고 KAIST의 장점을 극대화 해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을 지향할 것입니다. 커리어 초·중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최고경영자에게는 전반적인 경영의 이해가 필요한 제너럴리스트(Generalist)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과정과 프로그램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입니다. 자세한 것은 2016년 KAIST 경영대학 비전 선포식 때 발표할 계획입니다.

Q 10년 뒤 우리 학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2025년에는 세계 20위 내의 경영대학이 될 것입니다. 10년의 목표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면서 할 것입니다. "세계 Top Business School을 지향한다"는 파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갖고 노력할 것입니다.

Q 경영대학 학생들의 장점과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훌륭해요. 모든 학생이 연구실을 갖고 있어서 공부하는 시간도 많지요. 우리 졸업생에 대한 사회에서의 평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KAIST에 가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우리 학교의 수준이 높아서 힘들어하지만, 졸업 후 고국으로 돌아가고 나서는 훌륭한 인재들로 인정받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해 학업에 매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승작용을 통해 지금보다도 더 전문성 있는 인재들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과정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뛰어난 역량을 지닌 학생들이 많다 보니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남이 하기에 어려운 게 있으면 자신이 직접 나서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에게 항상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누가 와서 물어보면 웃는 얼굴로 잘 얘기해줘라. 그게 리더가 되는 길이다"라고 말해요. 진정한 리더는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남들을 도와주며 같이 발전해 나간다면 최고의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Q 교수로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우리 학생들이 졸업해서 잘 되는 것이 기억에 남아요. 예를 들어 처음 금융공학 과정을 열었을 때 오랫동안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저와 나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일 우려했던 학생이 졸업하면서 "이제는 산 중턱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숲이 보이기 시작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기쁘던지 그 감격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또한 '486'에서 '586'으로 업그레이드된 것 같다는 제자의 말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 MBA 졸업생은 6개월 정도 교육을 해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데 KAIST 졸업생들은 바로 현장에 투입할 정도로 교육이 잘 되어 있어 정리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Q 마지막으로 KAIST 경영대학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영대학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너와 나'라고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정신으로 마음을 합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화합과 발전을 이루어 갑시다. 교내에서만 아니라 세계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KAIST 경영대학'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20주년을 맞이한 KAIST 경영대학!

KAIST 경영대학 20주년이 되는 2016년을 맞아 경영대학의 설립 및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2014년 10월 역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경영대학 내부 구성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영대학의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경영대학의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이 역사위원회를 열정적으로 주도한 김영배 교수를 만나보았다.

Q 교수님이 “KAIST 경영대학의 살아있는 역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생긴 별명인가요?

저에게 그런 별명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아마도 1980년에 KAIST 경영대학의 모태가 되는 경영공학 석사과정 1기로 입학해서 졸업생으로는 처음으로 1988년 교수로 부임했고, 1996년 테크노경영대학원 설립 창설 멤버로 지금까지 36년간 KAIST와 인연을 맺고 지낸 것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Q 1996년 첫 개원 당시 KAIST 경영대학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는 참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 캠퍼스를 사용하는 경영대학은 대전과 달리 국비장학생 지원 없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했습니다. 당시 서울캠퍼스 시설은 매우 낡아서 화장실에서는 녹슨 물이 나오고, 현재 아트리움 위치에는 가건물 형태의 연구실이 있었죠. 식당 시설도 매우 열악하여 가끔 외국 손님들이 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될 때 아주 민망해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던 중 정부와 SK Telecom의 지원을 받아 기존 시설들을 대대적으로 리노베이션(Renovation)하게 되었고, 그 이후 쾌적한 환경의 SUPLEX 경영관에서 더욱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Q 지난 20년간의 KAIST 경영대학의 역사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요?

‘혁신’이란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KAIST 자체가 우리나라 이공계 교육 혁신의 첨병으로서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 주도로 특별법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특별한 기관이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은 물론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졌고, 교수들에게도 파격적인 대우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크나큰 업적을 남긴 성공 케이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KAIST가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원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경영대학 측면에서 보자면, 예전에도 일반대학교의 야간 경영학석사과정을 MBA라고 부르긴 했지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학위취득을 도와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시절 미국식 전일제 MBA를 국내 최초로 선보였고, 경영 사례 토론은 물론 통계와 영어 등 졸업을 위한 자격시험을 엄격하게 운영하여 국제 표준의 경영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기숙사와 연구실을 오가며 밤늦게까지 치열하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문화를 전파한 곳이 바로 우리

KAIST 경영대학이었습니다. MBA 프로그램뿐 아니라 석·박사과정 프로그램 역시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 높은 경영 이론 교육을 통해 많은 졸업생들이 해외 경영대학 교수로 직접 진출하는 성과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과 경영의 결합을 통한 세계 수준의 경영대학’을 비전으로 테크노MBA, 금융MBA, 경영정보MBA, 텔레콤MBA, 녹색MBA, 사회적기업MBA 등 타 경영대학과 차별화되며 동시에 시대를 앞서 사회에 필요한 경영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개설함으로써 KAIST의 혁신적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환경과 지속가능경영 등을 강조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MBA’ Ranking에서 전 세계 4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Q 오늘날 KAIST 경영대학은 어떤 모습인가요?

늘 그렇듯이 오늘의 KAIST 경영대학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청년들의 취업 사정이 어려워진 데다 여러 경영대학에서 경쟁적으로 MBA 프로그램을 개설함에 따라 시장에서 바라보는 MBA에 대한 시선이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영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한 특별한 무엇인가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껏 풀 타임(Full-Time) MBA만을 고집해오던 KAIST 경영대학에서도 파트 타임(Part-Time) 과정인 Professional MBA를 3년 전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경영 교육 프로그램의 혁신을 위해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올해는 가시적인 결과가 곧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Q 앞으로 20년 후 KAIST 경영대학이 어떻게 되길 바라십니까?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KAIST 경영대학은 정도가 아닌 쉬운 길을 선택하는 타협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와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하면 KAIST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타 대학의 2년 과정과 다르게 파트 타임(Part-Time) MBA를 3년 과정으로 내실 있게 만든 것 같이 조금은 힘이 들어도 우리는 제대로 공부하고 탄탄한 실력을 갖추서 남들과 승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길게 봤을 때 이것이 우리 KAIST 경영대학만의 차별화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경영대학에서 10년을 내다보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5년 전 세계 20위의 경영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KAIST의 모든 구성원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 KAIST 경영대학의 모습

KAIST 경영대학

20년사를 백서에 담다

KAIST 경영대학이

걸어온 길

학위 프로그램 변천사

(경영대학 교학팀 제공자료)

구분	전공/프로그램	~ '95	'96 ~ '00	'01 ~ '05	'06 ~ '10	'11 ~ '15	'16 ~
1995년 이전 경영 프로 그램	산업공학과에 경영과학전공 설치('80)						
	경영과학전공, 경영과학과로 승격('81)						
	경영과학과에서 경영정책학과 분리('91)						
	서울분원 경영정보공학과 설치('93)						
경영 공학 (석·박사 과정)	산업경영학과 설치('94) - 경영과학과, 경영정책학과 통합						
	경영공학전공 설치('96. 3) - 산업경영학과와 경영정보공학과 통합						
	경영공학과('09~'13.9)						
	경영공학부('13.9~)						
General MBA	기술경영전공('95.1~'99.2)						
	테크노MBA('99.3~)						
	IMBA('07.3~'16.2)						
	EMBA('04.3~)						
	FEMBA('15.3~)						
	PMBA('13.3~)						
Special MBA	금융공학MBA('96.3~'07.2)						
	금융MBA('06.3~)						
	통신경영/정책MBA('96~'07.2)						
	경영정보MBA('96~'07.2)						
	정보미디어MBA('06.3~)						
	사회적기업가MBA('12.9~)						
MS	환경경영/정책전공('98~'03.2)						
	녹색MBA('14.3)						
	금융공학프로그램('13.3~)						
	정보경영프로그램('12.9~)						
	녹색경영정책프로그램('13.9~)						

※환경경영/정책전공은 2003년 3월 테크노MBA에 흡수되어 2010년까지 트랙으로 운영

2016년 KAIST 경영대학이 개원 20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기념하여 지난 2014년 10월, 교수 및 직원으로 구성된 '20년사 발간 위원회'가 구성되어, 약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0년 간의 모든 역사적 발자취를 추적해왔다. 이는 경영대학이 걸어온 길, 잊혀질지 모르는 20년 간 학교의 중요한 자료와 경험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함으로써 경영대학의 역사를 정립하자는 취지에서다. 이 백서를 통해 우리는 지난 20년 간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되돌아 보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20년 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도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0년 전의 KAIST 경영대학을 되돌아보면, 우선 1995년 삼성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2년 전일제 미국식 MBA 교육 프로그램인 기술경영전공(테크노경영대학원의 전신)을 시작하였다. 또한 금융공학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던 1996년 금융MBA를 도입하였으며, 시대를 앞서 환경문제와 지속 성장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GreenMBA나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ICT 분야에 특화된 경영정보MBA, 통신MBA 그리고 기업 임원들과 핵심 중견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Executive MBA 등 당시에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국내 경영교육을 선도해왔다. 물론 시대에 따라 경영 환경이 변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도 진화해 왔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 내용을 중심으로 경영대학의 구조, 내부 구성원 및 외부 인사와의 인터뷰를 통한 회상, KAIST 경영대학의 향후 비전 및 나아갈 길 등의 내용을 담은 백서는 전시점에서 KAIST 경영대학의 나침반이 되어 새로운 도전을 추구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KAIST 경영대학의

역사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사이버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Gallery & Videos 화면

QR코드를 통한

사이버 역사관 접속 방법

(홈페이지 <http://archives.kaist.ac.kr/business/20th/main.do>)



사이버 역사관은 KAIST 경영대학의 역사 기록 관리를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간으로 내부 교수, 직원, 학생과 외부 동문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 구축된 플랫폼이다. 사이버 역사관은 다음과 같은 콘텐츠들로 구성된다.

Highlights Timeline

KAIST 경영대학의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역사를 담았다.

Book

2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된 KAIST 경영대학 백서와 Story Book에 대한 소개를 볼 수 있다.

Frontier

1997년 첫 출간 이래 최근까지 동문, 기업, 입학희망자 등을 포함한 7,000명 이상의 독자들을 보유한 KAIST 경영대학의 계간지를 모두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Gallery & Videos

20년 간의 다양한 학교 행사 사진과 영상을 담았다. 축제, 신입생 OT, 체육대회 등 여러 행사의 사진을 앨범 보듯이 e-book 형태(좌측 사진 참조)로 볼 수 있으며, 교수님들의 정년 퇴임식 기념 영상 등 다양한 영상도 확인할 수 있다. 재학시절의 사진을 보며 추억을 회상해 보길 바란다.

KAISTory

20주년을 맞이한 경영대학 교수진 및 동문들의 숨은 이야기를 볼 수 있으며, KAIST 경영대학을 추억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공간은 교수, 재학생, 동문 등 여러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는 오픈 공간으로,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다. KAIST 경영대학의 구성원과 동문들이 많이 방문하여 서로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스무 살 KAIST 경영대학이 써 내려간 역사들

20돌 KAIST경영대학 10대 발자취

새로운 경영 교육의 요람, SUPEX경영관 준공

1996년, “기술과 경영의 결합을 통한 세계수준의 경영대학원”을 비전으로 서울캠퍼스에서 힘차게 출발한 테크노경영대학원은 1998년에는 SK그룹의 기부와 과학기술처의 지원으로 경영교육의 새로운 요람인 SUPEX경영관을 준공했다. SUPEX경영관은 당시로는 파격적인 청동 지붕과 사용자 편의를 중심으로 한 설계로 2002년 서울특별시로부터 리모델링 우수건축상을 받기도 했다.



KAIST 경영대학은 1995년 기술경영전공(후에 테크노경영MBA로 변경) 개설을 통해 국내 최초의 미국식 MBA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했다. 1996년에는 금융공학MBA, 경영정보MBA, 통신MBA 과정을, 1997년에는 환경경영/정책전공(Green-MBA)을 설치하여 2006년 교육부 주도의 한국형 MBA 과정이 나오기 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경영교육 혁신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00년대에는 EMBA, IMBA 프로그램을, 2013년 이후에는 세계 최초의 사회적기업가 MBA, 시간제 교육과정인 PMBA, 금융공학, 녹색정책, 정보경영 등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석사과정(MS)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하여 경영교육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주도했다.

경영과학전공과 기술경영전공을 뿌리로 테크노경영대학원 개원

1980년, 산업공학과에 소속되어 있던 경영분야 교수진을 중심으로 KAIST 최초의 경영프로그램인 경영과학전공이 탄생했다. 이후 산업경영학부 산하의 산업경영학과로 발전했고, 1995년에 산업경영학과 내에 국내 최초의 전일제 미국식 MBA 과정인 기술경영전공이 개설되었다. 이어 1996년에 산업경영학과와 서울캠퍼스의 경영정보공학과를 아우르는 학부급 조직인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서울캠퍼스에 설립되었으며, 개원 10주년이 된 2006년에 단과대학 체제인 경영대학으로 확대·발전했다.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금융전문대학원 및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개원

2006년에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고급 금융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현 금융위원회)의 예산지원으로 금융전문대학원이 설립되어 우리나라 금융교육을 선도하게 되었고, 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도 출범하여 IT경영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어 테크노경영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을 아우르는 경영대학 규모로 확대 개편되었다.



경영대학 교수의 산실인 경영공학 프로그램 발전

경영과학전공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 경영분야 석·박사과정 교육을 선도해 온 KAIST 경영대학은 경영공학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171명의 교수를 배출하였고, 이 중 일부는 미국, 영국, 홍콩, 호주 등 해외 우수 대학의 교수로 바로 임용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졸업생들은 뛰어난 연구성과를 통해 KAIST의 명예와 학자/연구자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 일부는 산업계 리더로서 활약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창업, 녹색성장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선도적 프로그램 개설

KAIST 경영대학은 일찍부터 환경경영, 사회적임경영 등 지속가능발전과 사회가치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1998년에 환경경영/정책전공 과정을 설치하여 6년간 운영하였고, 그 이후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녹색금융프로그램, 환경경영연구센터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교육과정 및 연구활동에 적극 반영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에는 녹색성장대학원이 설립되었다. 사회책임경영 부문에서도 2003년부터 강의가 개설되었고, 2006년부터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사회적임경영과 사회적기업경영에 대한 단기과정을 제공하였다. 2013년에는 SK그룹의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는 사회적기업가MBA 과정이 세계 최초로 개설되었다. 이처럼 KAIST 경영대학은 기업가적인 정신으로 지속가능발전(Sustainability)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경영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인정과 국제화 가속화

KAIST MBA 프로그램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가 선정한 세계 100대 MBA 프로그램('11)에, 비학위과정인 경영자과정(Executive Program)은 4년 연속 아시아 1위에 선정되었다. 아울러 AACSB, EQUIS 등 세계 경영교육 인증기관의 인증을 먼저 취득하였고 세계 우수 대학들과 함께 PIM 가입 등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평판을 유지하고 있으며, AAPBS를 통해 아시아 경영교육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대학 MBA 프로그램들과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 금융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교수진의 활발한 연구 활동과 국제적 명성

KAIST 경영대학의 교수진은 각 영역에서 많은 연구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정보시스템 연구분야는 아시아 종합 3위에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연구성과가 탁월한 석좌교수, 국내 유수의 학회는 물론 세계 학회의 학회장 등 국내외 명성이 높은 교수들과 젊고 열정적인 교수들이 함께 세계적인 수준의 경영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계와도 활발한 산학협력 활동을 해오고 있다.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산업계에서의 맹활약

학문적 탁월성과 실용적 교육을 강조해 온 KAIST 경영대학의 다수 졸업생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벤처캐피털 업계에서도 큰 활약을 하고 있다. 대기업에 진출한 많은 졸업생도 CEO 및 핵심 임원으로 산업계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KAIST 경영대학 졸업생들이 창업했거나 CEO로서 운영하는 벤처기업은 230여 개에 이른다.



경영대학의 문화와 사회봉사 활동 (Beyond Knowledge)

KAIST 경영대학 전일제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개인 책상이 있는 연구실과 교내 시설을 24시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학생 대부분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드물고 뛰어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팀 활동과 관심 분야별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다. 이 밖에 노숙자 지원, 불우이웃돕기 등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도 다양하다. 지식뿐만 아니라(Beyond Knowledge) 윤리의식도 뛰어난 미래의 지도자로 커가기 위해 다양한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다.



KAIST 경영대학의 설립과 성장을 지켜보며

Interview 김지수, 안병훈 명예교수

Q 학교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980년 경영과학전공을 산업공학 내 개설한 것이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KAIST 본원이 25주년이 됐을 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때 대전의 많은 학과 교수들의 참여와 함께 배종태 교수, 이승규 교수, 김영배 교수가 실무를 담당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실 서울에 MBA를 만드는 데 비용 문제가 컸습니다. 하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국가 예산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며 연구 중심 과정인 경영공학 석·박사과정에 대해서만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 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성장을 위해 기업 대상의 삼성 75명, 타 기업 3명, 총 78명의 학생이 테크노경영 1기로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대전에서 수업하게 되었는데, 김지수 교수님이 책임교수를 맡으시면서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2기 학생들부터 서울에서 수업하게 되었는데 당시 교내의 건물들이 공사 중이어서 상당히 복잡하였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몰두하기에 약간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최초 설립 당시 힘든 과정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어떤 것이 성공 요소였나요?

(김지수 교수) 설립 당시 처음에는 교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몸이 되었습니다. 화살 100개가 하나로 뭉치면 잘 부러지지 않듯이 모두가 서로 양보하며 아껴주었습니다. 특히 안병훈 교수님께서 술선수범하시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수와 직원들이 동료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를 격려했으며,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책임감과 주인의식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최초에는 테크노MBA뿐이었지만 현재는 다양한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양한 과정이 생기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박사과 교수이기 전에 기업가라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협업이 중요한데 외국에서 MBA 과정을 마치고 국내에 돌아오게 되면 이 중요한 것들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해 학교의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확립했고 고객유치를 위해 특성화와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전문가를 만들겠다는 생각과 기업이 정신을 바탕으로 한 벤처를 설립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과정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995년 테크노MBA를 시작으로 이듬해 금융공학, MIS, Telecom, 환경, Design MBA로 계획했지만



Design MBA의 경우 교수진의 문제로 포기하게 되어 총 5개의 과정이 설립되었습니다. 간단히 과정 설립 초기를 설명 드리면 KAIST의 경영교육은 사실상 대전에서 시작하여 차츰 서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에서 석·박사과정 중심의 경영공학 형태의 과정이었다면 서울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출범은 이들 경영공학 과정에 본격적인 MBA 과정들을 도입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 MBA 과정은 주요 전략 분야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예컨대 Telecom과 MIS의 경우 당시 수요가 증가하는 시절이어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환경(Green) MBA의 경우, 당시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에 워크숍을 개최하여 인식을 전환해가며 프로그램 개설에 합의했습니다. IMF 금융 위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기업의 지원이 줄게 되었지만 미래를 보는 안목으로 최근에 다시 녹색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 KAIST 경영대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다양한 과제가 학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조인은 새로운 변화에 맞춰가되, 먼 안목과 기존에 우리가 잘했던 과정의 특성화를 바탕으로 차별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21세기 전략 분야를 아우르는 특화된 경영프로그램들이 국내 타 대학과 단순 경쟁을 벗어난 지속적인 차별화 경쟁 요소로 유지, 도약,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학교 미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Q 교수님에게 KAIST 경영대학이란 무엇인가요?

(안병훈 교수) KAIST 경영대학은 나, 국가, KAIST를 위한 봉사의 기회였습니다.

(김지수 교수) KAIST 경영대학은 인생의 보람이었습니다.

정리. 이새봄 기자



Interview 박성주 명예교수

Q KAIST 경영대학의 교수로 어떻게 임명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KAIST 본원의 1기로서 1975년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KIST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진주 교수님의 경영과학 전공 설립에 대한 제안을 받은 후 KAIST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진주 교수님, 안병훈 교수님, 차동완 교수님, 노공균 교수님, 김인수 교수님, 저 총 6명의 전임교수가 있었습니다.

Q 현재 경영대학이 설립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건들이 있나요?

3가지의 큰 사건들이 경영대학 설립 시기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첫째, 당시 새로 부임하신 총장님께서 경영대학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힘이 되었습니다. 둘째, 삼성에서 중간간부 교육 요청을 해오면서 경영과 관련된 학교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셋째, SK에서의 기금과 정부 지원금을 통한 2호관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통해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대전에서 기획처장으로서 예산과 조직을 기획했습니다. 서울에서 개원에 힘쓰는 다른 동료 교수님들을 지켜보며 현장보다는 멀리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미안한 마음에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Q 교수님께서 경영대학원 원장 및 부총장이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2001년 대학원장으로 취임하면서 AACSB 인증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청 후 2년 만에 취득했는데, 교수들 간의 단합이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KAIST를 성장시키겠다는 한가지 목표로 뭉뚱 뭉뚱했던 것 같습니다. 타교의 경우 총장 개인을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죠. 인증 취득 후 국내의 경영대학을 대상으로 기념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경영대학이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의 학교들이 성장해야 우리 학교의 경쟁자가 생겨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가 유럽의 EFMD, 아시아의 AAPBS 조직의 이

사로 임하게 되면서 외국에 KAIST를 알릴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Q 교수님에게 KAIST란 무엇인가요?

KAIST 경영대학은 제 인생의 굴레입니다. 유학생들과 잠시 근무한 KIST에서의 생활을 제외하면 약 40년을 KAIST에서 보냈습니다. KAIST는 배우고 일하고 성장하고 은퇴까지 제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KAIST 경영대학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공간들

홍릉에 위치한 KAIST 경영대학 캠퍼스. 이곳은 여름에는 푸르고 가을에는 몰라보게 화려해진 단풍나무가 원형 광장을 밝힌다. 조용한 캠퍼스가 때로는 세계 각국의 학생들로 북적이기도 하고 모두가 즐기는 축제 날이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짧게는 1년에서 수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곳을 떠난다면 캠퍼스 곳곳과 거기에 담긴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다.



원형 광장

캠퍼스에서 계절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짧기만 한 지난 가을이 애석하게 느껴졌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앉아있을 수 있는 2단 벤치가 있어서 갇힌 공간에서 미팅을 하기 싫을 때면 이 곳으로 자리를 잡기도 했다. 여기 앉아 있으면 SUPEX로 오고 가는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모미다. 축제 날이면 이곳 원형 광장에 여러 가지 미니 게임을 하는 장이 펼쳐져 학생들이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게임을 즐겼던 기억이 난다. 기숙사에서 내려와 SUPEX로 들어갈 때 화단에 있는 돌다리를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원형 광장 메인 길을 통해 들어갈 것인지 사소한 고민을 하기도 했다.



아트리움

차 한잔 하면서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꼽으라면 아트리움이다. 유리로 지어져 확 트인 느낌인데 지어질 당시에는 유리건물이 흔치 않아서 반대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명물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의지와 믿음으로 지금의 모습이 갖춰졌다고 한다. 아트리움에 가면 커피를 사러 온 사람부터 동료들과 신나게 이야기하는 사람, 피아노를 치러 온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학회나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저녁 시간에 조명을 살짝 낮추면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 있는 공간으로 변신하는 아트리움. 모두가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외부 친구가 학교로 놀러 온다면 자랑하고 싶은 공간이다.



개인 연구실(Lab)과 스터디룸

풀타임 학생이라면 누구나 연구실(Lab)의 자리한 칸이 주어진다. 경영공학 석·박사과정 학생들은 연구지원을 위해 지도 교수님별로 연구실 가까이 배치되고, MBA 학생들은 전공별로 운영 원칙에 따라 매 학기 방을 바꿔가는데, 이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된다. 이곳에서 과제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러다 팀 프로젝트를 약속한 시간이 되면 스터디룸으로 옮겨 함께 과제를 해결한다. 수업 듣는 시간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아닐까 싶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팀워크를 발휘했던 시간, 시험 기간에 졸린 눈을 비비며 앉아 있었던 시간들... 이 또한 지나고 생각해 보니 나와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과정이었다.

SUPEX경영관

경영대학의 주요 교육연구시설인 SUPEX경영관은 2002년 서울시로부터 리모델링 우수 건축상을 받은 멋진 곳이다. 원래 2호관이라 불리는 4층짜리 평범한 교육시설이었는데, 1998년 SK그룹의 기부와 과학기술처의 지원으로 5층짜리 건물로 개보수 증축했다. 각종 행사와 이벤트가 가능한 최충현 홀(콘퍼런스룸)과 독특하고 창의성이 돋보이는 유리로 된 아트리움, 그리고, 5층의 학생연구실들이 추가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5층 최충현 홀은 SK그룹을 만든 최충현 회장의 이름을 기념하여 명명되었고,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고인의 흉상도 함께 설치해 그 뜻을 기리고 있다. 특히 20년이 지나도 외국의 유수한 건물 못지 않

구름다리에서 후문으로 이어지는 길

경영대학 학생치고 '구름다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이름이 언제부터 구름다리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부르고 있고 더 짧게 줄여 '구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구름다리는 원래 현재의 공간에 없던 것을 테크노경영대학원 출범과 함께 SUPEX경영관 리모델링 시 설치되어 모든 구성원의 다리 노릇을 하고 있다. SUPEX



기숙사

캠퍼스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안쪽에 위치한 기숙사. 파정사, 소정사, 해정사 세 곳에는 밤이 되어도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다. 학업에 대한 열정이기도 하고 동료들과의 교류를 위한 열정이기도 하다. 가장 꼭대기 층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앉을 수 있는 소파와 테이블이 있어서 못다 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곳이기도 하고 문을 통해 나가면 밖으로 이어져 옥상에서 멋진 전망을 볼 수도 있다. 처음 옥상에 갔을 때 예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전망에 놀랐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기숙사가 오래되어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노력과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과 캠퍼스 시설 건축을 담당하던 박종익 선생이 먼저 다녀왔고 2차에는 안병훈 대학원장,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경영대학 직원(임상오 운영과장, 최명우 선생) 등 5명이 미국 7개 경영대학(UC Berkeley Haas School, UCLA Anderson School, Stanford Business School, U of Illinois Business School, Northwestern University Kellogg School 등)의 이름난 캠퍼스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측량과 사진작업을 하는 등 캠퍼스 구축을 위한 노력과 열정을 기울였다.

스위스 교환 학생기 2015년 스위스 HEC Lausanne 교환학생 후기



대부분 스위스 하면 초콜릿, 풍류, 살인적인 물가, 치즈, 하이킹, 초원, 알프스 소녀 하이디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저는 사실 교환 학생을 지원할 당시에 프랑스, 독일 등 타 유럽 국가에 비해 스위스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교환 학생 지원 당시 불어를 다시 배워보고 싶어 불어권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알아보던 중, HEC가 소재하고 있는 로잔이 불어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불어, 독어, 이탈리아어, 로만어(스위스 방언)를 사용하고, 그중에서도 독일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공식 문서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에 가면 모든 제품의 상표가 불어, 독어, 이탈리아어로 병기되어 있고, 같은 스위스인이더라도 각자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영어로 의사소통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불어와 스위스 불어는 조금 다릅니다. 프랑스와 언어는 같지만 문화 차이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충청도 사투리가 느껴 “아버지 돌 굴러가유~”라는 유머가 있는 것처럼 프랑스인이 듣기에 스위스 불어는 느린 편이라 이를 풍자하거나 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인사로 비쥬(bisous, 서로 양쪽 볼을 번갈아 가면서 ‘쪽’하고 입으로 소리를 내는 인사법)를 하는데 프랑스와 달리 스위스는 세 번을 합니다.

스위스는 아시다시피 치즈가 유명하고 전통음식으로는 라클레트, 풍류 등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지역은 화이트 와인 생산지로도 유명한 자국민 소비위주와 수출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지냈던 로잔은 스위스 보(Vaud) 칸톤에 속하며 제네바에서 기차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로잔대학교와 더불어 로잔연방대학(EPFL), 로잔주립예술대(ECAL)가 위치해있어 해당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로잔대학교의 경영대학(HEC 로잔)은 스위스 내에서 경영대학 순위 1위, 전 세계 랭킹 23위를 자랑합니다. 수강했던 과목 중 '글로벌 마케팅' 과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조원들과 함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마케팅 방법론을 연구 및 적용하여 스위스 초콜릿 브랜드를 폴란드 시장에 론칭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상당한 양의 보고서를 매주 함께 작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로잔대학과 같은 캠퍼스에 있는 로잔연방대학은 세계 랭킹 15위를 자랑하는 공과대학입니다. HEC 로잔과 함께 혁신, 창업, 기술경영 분야에 학술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어 로잔공과대학에서 Technology Management 및 Innovation과 관련한 과목을 수강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EPFL 캠퍼스 내에는 혁신 센터가 있는데 스타트업, 네슬레, 로지텍 등 스위스 대표 기업의 기술 연구소와 스타트업 센터 및 기업이 함께 입주해 있어 평소에 관심 있었던 스타트업, 창업, 기업이 정신과 관련한 콘퍼런스에 참석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필립모리스, 네슬레, 로지텍 등 스위스를 대표하는 회사의 본사가 모두 로잔 시내 및 근교에 위치해 있는데 수강하는 과목 중 기업 탐방 과제가 있어 필립모리스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기간 동안 에라스무스 연합(ESN)에서 주최하는 여러 이벤트에 참석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매주 스포츠, 풍류 파티, 초콜릿 공장 방문, 하이킹, 스키 캠프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어 즐거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기간동안 HEC 로잔의 열정적인 수업과 학생들, 글로벌 기업 견학,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홍릉에 찾아온 할로윈 데이 KAIST 경영대학 할로윈 네트워킹 파티!

2015년 10월 29일 저녁, KAIST 경영대학의 SUPLEX경영관 아트트리움에서 제2회 할로윈 네트워킹 파티가 열렸다. 이른 저녁 시간부터 할로윈 장식과 분장을 위해 모인 학우들로 아트트리움은 파티에 대한 열기로 가득 찼다. 공연과 각종 게임으로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한 데 어우러져 서로를 알아가면서, KAIST 경영대학의 다국적 파티는 추운 가을바람을 잊도록 무르익었다.



2014년 성공적인 할로윈 네트워킹 파티를 시작으로, 2015년 KAIST 경영대학 내 할로윈 네트워킹 파티가 학생회와 KAIST Talk*의 주최로 열렸다. 이번 가을학기에는 특히 많은 외국인 교환 학생들이 KAIST 경영대학을 방문했다. 그리고 파티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경영대학 학우들이 한데 어울려 할로윈 분장을 하고 저녁을 먹으며 시작되었다. 이번 행사는 7시부터 시작했고, 외국인 학생 대표인 Julie(테크노MBA '15, 미국)가 사회를 맡아 영어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본격적인 행사는 경영대학의 밴드동아리인 주크박스의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주크박스는 할로윈 데이에 어울리는 선곡과 편곡으로 파티에 참가한 학우들의 귀를 즐겁게 했다. 또한 공연뿐만 아니라 여러 이벤트도 진행되었고, 경영대학 학우들과 외국인 친구들은 함께 팀을 이루어 제기차기와 비어퐁(Beer Pong) 등의 간단한 게임을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의상을 갖춰 입고 지역 문화활동을 활성화시켜주고 있는 미국 내 대표적 축제인 할로윈에 맞도록, KAIST 경영대학 학생들도 다양한 분장과 의상으로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렸다. 마녀부터 요정, 동물, 좀비, 영화 주인공 등 다양한 캐릭터로 분장한 학우들은 함께 사진을 찍으려 모여든 다른 학우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다. 이번 할로윈 네트워킹 파티에서는 콘셉트에 맞게 분장을 잘한 학우들에게 S(Scary), F(Funny), C(Creative) 스티커를 붙여주는 이벤트가 진행되었는데, 조커, 미니언, 해골 분장을 한 학우들이 이번 할로윈 의상 콘테스트에서 가장 많은 스티커를 받고 우승하였다. 마지막으로 댄스 타임을 가졌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모든 학우가 즐겁게 춤을 추고, 인사하는 것으로 파티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서 사회를 맡은 테크노MBA Julie Allison Blandeau(캐나다) 학우는 “실제로 할로윈 파티를 직접 준비하고 이벤트의 사회자가 되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특히 한국에서 할 수 있게 되어 남다른 자리였다. 파티가 시작되기 전에는 너무 떨리고 걱정했었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열심히 준비해준 학교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던 좋은 경험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주크박스 공연을 준비하며 할로윈 네트워킹 파티에 참석한 경영공학 이승준 학우는 “할로윈 공연을 준비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를 고려한 선곡부터 연주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정말 재미있었고, 다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를 시작할 수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었다. 또한 네트워킹 파티답게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음식과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이번 기회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할 학교생활이 더욱 기대되며, 이런 행사가 교내에서 자주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2015년 KAIST 경영대학 할로윈 네트워킹 파티는 많은 학생의 참여로 깊어가는 가을 저녁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자리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내·외국인 학생들의 교류의 장이 활성화되고 다음 해에도 더욱 다채로운 이벤트로 가득 찬 할로윈 네트워킹 파티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KAIST Talk이란?

KAIST 경영대학 내 외국인 교환학생, 교내 학생, 교원과의 친목을 도모하는 동아리로 다문화 교류를 위해 지식과 소셜 경험을 공유한다.



즐거운 상상을 하는, 테크노MBA 1기 졸업생 김흥수 동문을 만나다

삼양식품 글로벌사업부문 사장(前 동방 CJ 사장)

올해 20주년을 맞은 경영대학은 그동안 수많은 동문을 배출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경영대학이 첫 문을 열었을 때 몸담았던 테크노MBA 1기 졸업생을 만나 경영대학 졸업 전후의 이야기와 함께 그가 앞으로 이어나갈 즐거운 상상에 대해 들어보았다.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KAIST 경영대학을 입학하기 전과 후 16년간 삼성전자에서 재직했습니다. 그 후 중국에서 IT 사업도 해 봤습니다. 동방 CJ에서 12년간 사장을 맡았고, 8개월 전 삼양식품 글로벌 담당 사장으로 한국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31년 회사 생활 중 23년을 홍콩, 대만, 북경, 상해 등 해외에서 생활했습니다.

Q 학교 다니시던 때가 20년 전인데요. 당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사실 1기 학생들은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전 캠퍼스는 아주 멋졌죠. 회사를 다니다가 학교에 다닌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당시 통계와 영어시험을 치고 입학할 정도로 문턱도 높았습니다. 커리큘럼이 아주 훌륭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노테크놀로지 등 기술 관련 강의도 들을 수 있었고, 여름방학에는 카네기멜론 대학에 직접 방문해 마케팅 과정을 듣기도 했습니다. 2년 Full-Time과정이었기 때문에, 동기들과의 관계도 깊었습니다. 1기 동기들 간 단합도 잘 되어 지금까지도 정기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Q 동문님에게 KAIST 경영대학은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KAIST 입학 전후로 저의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의미 있는 교육이었습니다. 입학 전에는 해외영업/마케팅이었는데, 졸업 후 처음 배치된 곳이 해외마케팅 파트장 자리였습니다. 해외본부에서는 SONY TV와 비교한 삼성 TV 가격 전략, 휴대폰사업부에서는 애니콜 1등 전략 등 다양한 전략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KAIST 입학 전에는 영업맨이었다면 졸업 후에는 전략가로 포지셔닝하며, 역할의 퀄리티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일기장에 쓴 단어이기도 한데, ‘즐거운 상상을 하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바로 목표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10년 뒤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즐거운 상상을 하며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예요.

Q KAIST 경영대학이 20주년을 맞았는데요. 우리 학교가 더 발전하려면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중국 칭화대가 떠오릅니다. 창업 관련된 인큐베이터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여러 대학도 캠퍼스 내 인큐베이팅 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직 2%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미흡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KAIST 경영대학이라면 우수한 교수진과 인재들이 많으니, 국내에서 제대로 한 번 사례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한국의 미래 경쟁력은 콘텐츠와 서비스에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창의적인 면에서 아주 우수하다고 보는데, 교육은 창의적이지 않아 유감입니다. 그런 부분을 KAIST 경영대학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준다면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요?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보람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펀드를 배경으로 한 스타트업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 하는데 있어 “China Mentor”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런 제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 스타트업은 Globalization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Globalization에 있어 스토리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어필 해야 합니다. 결국은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인맥들과 정보를 한국의 스타트업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Q KAIST 경영대학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는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일기장에 쓴 단어이기도 한데, ‘즐거운 상상’을 하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즉 목표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10년 뒤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즐거운 상상을 하며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독수리&칠면조 Rule’입니다. 독수리로 시작하느냐, 칠면조로 시작하느냐의 갈림길이 사회에 나가기 직전에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졸업하기 전까지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를 달성한 후 사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잘 쓰는 말이 있는데요. “心想事成(심상사성)”.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추구하면 이루어진다’는 중국 성어입니다. 새해인사로 쓰기도 합니다. 인생은 멘탈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탈이 강하고 뚜렷해야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것이 자기 계발에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사고와 목표를 가지고, 기록을 남기라는 이 세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KIM HEUNG SOO

박원순 서울시장, 청년 창업가들과 고민 나눠



2015년 10월 19일, 서울시 '일자리 대장정'의 일환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신계륜 국회의원, 유덕열 동대문구 구청장 등이 KAIST 경영대학을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고민을 나눴다. 먼저 사회적 혁신기업의 창업과 보육을 지원하는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회사와 SK사회적기업가센터를 방문해 그곳에 입주해 있는 청년 창업가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박시장은 '비빔밥'을 통해 세계에 건강 캠페인을 진행하는 '비빔밥 유랑단'의 사업내용을 극찬하였고, 공정무역을 통해 더 행복한 지구촌을 꾸꾸는 '어스맨'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어 청년 창업가들과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쪽방촌 거주자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고 생활 요건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인 '꽃피우다'를 운영하는 양순모 학우(사회적기업가MBA '15)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려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넘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고 질문했다. 이에 박시장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이 정착되지도 않은 초창기에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커피' 등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무지막지하게 밀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었다"며,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멘토 시스템이 있으면 어려움이 덜할 것이다. 교수님이나 창업투자사 등이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KAIST 졸업생 등 KAIST 내부에서도 함께하는 분위기를 더욱 고취시키면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피 가맹점을 모아서 선불제 커피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박형진 학우(정보미디어 MBA, '15)는 "서울시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은데, 외국인에게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할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박시장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어서 중국사람들에게 쓰라고 하면 사용도가 낮다. 따라서 처음부터 중국의 인터넷 회사들과 협력해서 같이 만들면 요우커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시가 중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주식회사 텔다'를 운영하는 김수정 학우(테크노MBA '15)는 "초기 창업자는 창업과정에서 많은 위기를 겪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므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도적 장치나 컨설팅 등을 서울시에서 확충해줄 수 있는지"와 더불어 "실패 분위기를 용인할 수 있는 한국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박시장은 "한번 실패하면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비전을 만들게 된다. 실패는 결코 손해가 아니고 다음 성공을 위한 근간이 된다"며, "실패해도 괜찮다"고 답했다. 또한, 즉석에서 "7전 8기 포럼을 제안하겠다"며, 7번 실패한 사람이 서울시를 상대로 정책적 제안을 하는 포럼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시장은 "꼭 KAIST 경영대학에 오고 싶었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이번 행사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 KAIST 경영대학 가족들에게 "경영이라는 것은 늘 바뀌어서 경영대학 커리큘럼이나 주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KAIST 경영대학이 새로운 주제, 강의, 프로그램을 제시해 현재와 미래를 잘 통찰한다고 생각한다. 항상 응원하겠다"고 청년 창업가들을 독려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임혜민 학우(사회적기업가MBA '15)는 "학생들의 얘기를 말할 수 있고, 실질적인 정책 이야기를 들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5 KAIST 금융인의 밤 개최

연말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동문이 함께 모이는 Homecoming Day가 열린다.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역시 2015년 12월 2일, '2015년 KAIST 금융인의 밤'을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금융전문대학원 동문 및 교수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생생한 금융산업의 현장을 달린 동문의 수고와 열정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5년 12월 2일, 금융전문대학원 동문 및 교수진들이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15 카이스트 금융인의 밤'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금융전문대학원은 1996년 개원 이래 1,100여 명의 동문들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금융산업 및 금융 직무에서 다양하게 활약하고 있다. 본 행사는 금융전문대학원 동문회 주관 행사로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 시작 전 테이블당 10여 명의 동문과 교수진 및 재학생들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동안 나눌 수 없었던 서로의 안부를 묻으며 행사 시작을 기다렸다. 본 행사는 권오규 교수, 한인구 교수, 강장구 금융전문대학원장과 차봉수 금융전문대학원 동문회장의 축사 및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금융전문대학원 동문회장인 차봉수 신한은행 부부장은 이번 자리를 통해 "금융전문대학원 동문은 금융산업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가족이며, 한 해가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매우 기쁘다"며, "이런 자리를 통해 서로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하며 참석한 동문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만찬과 함께 시작한 네트워킹 시간에는 KAIST 경영대학 생활의 그리움을 추억하는 동문들과, 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재학생들이 자유롭게 테이블을 옮기며 인사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여러 선후배의 만남에 시종일관 웃음꽃이 만발하였으며 친분을 쌓을 수 있는 네트워킹 시간이었다. 금융전문대학원 전 동문회장인 조두희 OSB저축은행 전무는 "해마다 금융인의 밤이 많은 관심 속에서 행사를 지속해 왔는데, 이런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많은 동문을 배출하고 있는 금융전문대학원의 전임회장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5년 KAIST 금융인의 밤은 금융전문대학원 동문이 현업에서 수고하고 있음을 응원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자랑스러운 동문이 한 자리에 함께하며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의 자부심과 결집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전문대학원은 1996년 개원 이래 1,100여 명의 동문들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금융산업 및 금융 직무에서 다양하게 활약하고 있다.



KAIST 경영대학 가족들의 따뜻한 온기를 느낀, 헌혈의 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이른 아침부터 KAIST 경영대학 1호관 앞이 평소와 다르게 분주해졌다. KAIST 경영대학과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KAIST 헌혈의 날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10월 헌혈행사 참여를 통해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이웃사랑도 실천하는 가슴 따뜻한 KAIST 경영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TMBA '15 송영욱 학우
(경영대학 학생회장)

Q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바로 헌혈 가능 조건이었습니다. 사전에 헌혈의 날 참여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학우가 행사 당일 헌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헌혈이 불가 하거나, 특정 지역을 특정 시기에 방문 했다는 이유 때문에 아쉽게 행사장에서 발길을 돌린 학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헌혈 참여자 4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실패할까 걱정이 많았지만, 사전 신청자 이외에 많은 학우 및 교직원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다행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Q 향후에도 헌혈행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제가 학부생일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항상 교내에 헌혈차량이 대기해 있었습니다. KAIST 경영대학의 규모가 크지 않아 헌혈 차량이 상시 대기를 하진 못하겠지만, 매년 10월 중 하루를 헌혈의 날로 선정해 헌혈행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IMMBA '15 박설훈 학우
(행사 참여 학생)

Q 평소에도 헌혈을 자주 하나요?
헌혈을 한 건 이번이 두 번째예요. 헌혈은 고등학교 때 처음 했었고요. 그때도 학교로 헌혈차가 와서 신청해서 했어요. 그 이후로는 잊고 있다가 이번에 학교에서 헌혈 캠페인을 하길래 신청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해 보니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동안 왜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종종 헌혈의 집을 방문해서 헌혈해 볼 생각입니다.

Q 헌혈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수혈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일이잖아요. 나중에 어떤 사고로 저 자신도 그렇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보통 헌혈하는 데에 10분 내외 밖에 안 걸리고, 헌혈 후에 물을 많이 마시고 당일에 과한 운동만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이렇게 조금 배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헌혈 실천은 우리 모두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혈 실천은 내 피를 수혈받을 누군가를 위해 몸에 좋은 습관들을 기르는 일 같아요. 많은 분들이 헌혈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걸 교수

Q 바쁜 일정임에도 이렇게 헌혈 행사에 참여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 학교 모토가 "Beyond Knowledge!" 아닙니까? 경영대학 가족들이 자신만이 아닌 주변 이웃들을 돕는 데 돈이나 시간을 들이는 일보다 "헌혈"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이번 "헌혈의 날 행사"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으셨다면요?
경영대학 가족이 50명 이상 신청했는데도 당일 혈압 수치, 빈혈, 감기 등의 이유로 헌혈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공부도 좋지만 평소에 꾸준히 운동해서 졸업하기 전에 꼭 헌혈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KCB 우리홍릉 예체능, 2015 KAIST 경영대학 체육대회

체육대회 한 달 전부터 학교 복도에는 하늘색 'KCB 우리홍릉 예체능'이라는 포스터가 붙여졌고, 많은 학생들이 사전 설문을 통해 체육대회에 대한 열정을 표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2주 후인 지난 2015년 11월 6일, 양평 서종문화체육공원에서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한 교수 및 직원,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한 그 현장을 취재했다.

체육공원에 들어서자마자 티셔츠를 받은 참가자들은 행운번호가 적힌 이름 스티커를 옷에 붙이며 한껏 들뜬 모습을 보였다. 한쪽에는 따뜻한 어묵탕과 김밥이 준비되어 있어 운동 전 배를 든든히 채울 수 있었다. 송영욱 학생회장(TMBA '15)과 임정선 학우(IMBA '15)의 사회를 시작으로 김동석 학장님의 '파이팅'과 함께 2015 KAIST 경영대학 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추억의 국민체조 음악 소리와 함께 전 참가자가 몸을 풀고, 청팀(ME, FMBA, IMBA, 녹색경영정책 등)과 홍팀(TMBA, 교환학생, IMMBA 등)으로 나누어 경기를 시작했다. 오전에는 축구 예선전과 농구 예선 및 결승전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어 4인 5각까지 마치고,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학생들은 오전 경기의 흥분되었던 순간들을 공유했다. 축구와 농구는 모두 청팀이 우승하며 오전의 분위기가 기운다. 오후 경기인 짝피구, 줄다리기, 이어달리기에서는 홍팀이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남녀가 함께 경기한 짝피구에서는 양 팀이 너무 잘하는 바람에 승패가 잘 나지 않았고, 해당 심판은 경기 규칙을 3번이나 바꾸며 유연한 진행을 보였다. 근소한 점수로 최종 우승은 홍팀으로 돌아갔지만, 승패와 상관없이 모두 박수를 치며

뜨거웠던 하루를 마감했다. 홍팀의 일일 팀장 민복기 학우(TMBA '15)는 "No Mercy 전략이 통했다"며 재치 있는 소감을 전했다. 마치 하늘이 기다려준 듯 체육대회가 끝나고 버스가 출발하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체육대회를 기획한 학생회 문화체육부장 조형진 학우(TMBA '15)는 "체육대회가 2학기 행사 중 가장 큰 행사여서 부담감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즐기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열정적으로 모든 경기에 참가한 이준 학우(IMMBA '15)는 "함께 뛰면서 땀을 흘리니 하나가 되어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 같다"며, "유럽 교환 학생들과 같이 팀을 이뤄 축구와 농구를 했는데, 경기에 졌는데도 웬지 모를 통쾌함이 있었다. 축구의 고장에서 온 독일 친구들이 상대했던 FC KAIST 학우들의 실력을 입이 마르게 칭찬하는 것을 들으니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말하며 색다른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함께 뛰어 공유했던 시간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며, 학업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잠시 학교를 벗어나 아름다운 가을 풍경에 둘러싸인 곳에서 쌓은 추억은 더욱 특별하게 기억되리라 믿는다.

KAIST
경영대학,20주년 앞두고
Homecoming Day
개최'2015 동문상 시상,
동문 네트워킹, 미니 경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성황리에 마쳐

2015년 11월 21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는 KAIST 경영대학의 자랑스러운 동문과 재학생들이 한데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매년 열리는 Homecoming Day 행사이지만 이번 Homecoming Day는 20주년을 앞둔 만큼 더 큰 관심 속에 치러졌다. KAIST 경영대학이 20주년을 맞는 만큼 그 역사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동문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정재민 교수와 류영우 학생(금융공학 '15)이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하였고, 김영걸 대외부학장은 주요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아 Homecoming Day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KAIST 경영대학의 밴드 동아리 JUKE BOX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올린 이번 행사는 권영수 총동문회장의 개회 선언, 김동석 경영대학장의 격려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올해의 동문상과 올해의 공로상 시상식이 이어졌는데, 동문상의 경우 올해는 특별히 전공 분야별로 시상이 이루어졌다.

올해의 동문상

- 경영공학: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부총장
- 기술경영: 조남성 삼성SDI 대표이사
- Executive MBA: 신영권 포항스틸러스 사장
- 금융공학: 허필석 마이다스에셋 자산운용 대표이사
- 정보미디어(Telecom MBA): 최영익 KT CR지원실장(전무)

올해의 공로상

- 금융공학: 조두희 오릭스 저축은행 전무

2015
KAIST
COLLEGE OF
BUSINESS
HOMECOMING DAY

시상식에 이어 먹음직스러운 핑거푸드와 와인을 함께 즐기며 즐거운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 동문뿐만 아니라 재학생들도 자리를 함께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현직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부터 학창시절의 일화나 경영대학의 변천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던 무렵, 참석자들의 시선은 경영대학 10대 뉴스로 집중되었다. 김영걸 대외부학장이 진행한 경영대학 10대 뉴스는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대학을 빛낸 소중한 결과물이었다. 자랑스러운 동문과 유능한 재학생들을 비롯한 경영대학 가족들이 모두 함께 빛어낸 만큼 더욱 뜻깊은 '사건'들이었다.

동문회 총회, 해금 6중 주단 '어울림'의 축하 공연, 재학생들의 인사가 끝난 후, 행사 막바지에 진행된 자선 미니 경매와 경품추첨은 행사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했다. 동문이 기증한 최신 전자기기, 최고급 의자, 골프장 이용권, 고급 주류, 레스토랑 식사권, 상품권 등이 경매에 부쳐졌다. 낙찰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낙찰에 성공한 사람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경매를 통해 거둔 수익금은 전액 '청량리 밥퍼 나눔 운동본부'에 기부될 예정이어서 더욱 뜻깊은 경매였다. 한편 자선 미니 경매와 함께 진행된 경품 추첨에서는 수제 잼, 고급 주류, 호텔 숙박권, 이불, 한정판 액세서리 등이 제공되었고 저마다 다른 당첨 소감으로 장내는 웃음바다가 되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치고 모든 동문과 재학생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참석자들은 질서정연하게 퇴장하며 학교에서 마련한 소정의 기념품을 받으며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 동문에게는 재학시절을 추억하는 계기가 되었고 재학생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동문과 이야기를 나누며 꿈을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20주년을 맞는 2016년에는 더욱 많은 동문, 재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Homecoming Day가 되기를 기원한다.

KAIST MBA 인터넷 방송
KAIST MBA 교수진이 아프리카로 간 이유?!

매주 목요일 밤 9시
<http://afreeca.com/kaistbs>

시간	강사	주제
1.28 - 2.4	김영걸 교수	CRM
1.21	김영배 교수	사용자 혁신
2.11	정재민 교수	온데만데 TV
3.3 - 17	윤여선 교수	마케팅
2.18 - 25	박광우 교수	기업재무
3.24 - 4.21	이병태 교수	IoT/핀테크/공유경제
4.28 - 6.2	오원석 교수	모바일 혁신 빅데이터 경영

KAIST 경영대학

KAIST 경영대학은 아프리카 TV 플랫폼을 통해 지난해 9월 초부터 교육 콘텐츠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 2015년 가을학기에는 김영걸 교수의 CRM, 정재민 교수의 온데만데 TV, 김조교의 이직텔레비, 류영우 BJ의 흥릉뉴스, 박샛별 BJ의 동문데이트, 외국인 교환학생들의 The Monday Night Show, 박형진, 류영우 BJ의 대기업 과장님들과의 먹방토크, 임재완 BJ의 플라워 클래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했다. 2015년 11월까지 방송 시간 총 50시간, 누적 시청자 수 총 3,788명, 애청자 220명을 기록했다. 2016년 1월부터는 방송을 일반인에게까지 Open하였는데, 봄학기에 방송될 강좌 중, 주요 강좌에 대해 소개한다.



글. 윤성민 기자

KAIST 경영대학 인터넷 방송

김영걸 교수의 “CRM”

대표 사례와 키워드 학습을 통한 CRM 수업

상상을 찌르는 파격적인 고객 혜택을 제공하는 회사 STATE FARM 사례를 시작으로 보험 판매 비용이 가장 적고 보험대리인 시간이 가장 긴 STATE FARM 회사를 설명하며 생산성이 높은 이유의 원동력인 고객 유지율을 소개하였다. 김영걸 교수의 CRM 강의는 적절한 예제를 설명하며 고객 중심이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한다. 또한 방송 시작 전후와 중간에 퀴즈를 통한 시청자 참여 유도로 방송 교육에 큰 재미를 더하고 있다. 귓속말로 이름과 주소를 보내면 상품을 받을 수 있는데, 퀴즈를 맞추으로써 동문들의 새로운 소식을 듣고 교류할 수 있어서 더욱 좋다. 게다가 쉽고 빠르게 CRM을 배울 수 있다. **2월 4일 (목) 방송 예정**

정재민 교수의 “온데만데 TV”

온데만데 퍼져있는 콘텐츠를 On Demand로 본다

정재민 교수의 온데만데 TV는 “1인 방송의 메시”라고 불리울 정도로 코믹하고 재미있다. 특히 미디어 이론들을 설명하며 솔직 담백한 스토리를 들려준다. 그 예로 미디어 이론 중 마법의 탄환, 미디어 프레이밍, 3차 효과이론 등 오피니언 리더들의 영향력이 미디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들을 수 있다. **2월 11일(목) 방송 예정**

박광우 교수의 “기업재무”

Alibaba는 왜 NYSE로 갔는가?

Facebook의 기업공개가격은 적정하였는가? 왜 YouTube는 Google에 매각되었는가? 어떻게 자기업인 Twitter는 기업공개를 할 수 있었는가? 이 강좌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포함하여 전 세계 기업의 최근 자금조달 경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2월 18일(목) 방송 예정**

글. 안재홍 기자

멘토와 멘티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멘토링 프로그램 교내 킥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서로를 알게 된 멘토와 멘티들이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멘토링 활동에 대한 간단한 보고 및 발표가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 멘토링 팀을 선정하였다.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아홉 번의 만남을 가졌다니 정말 கூ합이 잘 맞는 선후배 아닐까? 이들을 만나 멘토링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전영호 멘토
(AIG Korea, 금융전공 '07)

Q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회생활을 해오는 동안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를 후배들이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고, 졸업생으로서 학교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Q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멘토링을 통해서 멘티의 고민이 다 해결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Target Career Path에 대한 좀 더 빠르고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기만이라도 한다면 멘토링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이라 봅니다.(저는 이것을 가지치기라고 부릅니다) 멘토·멘티 모두 멘토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서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의 제 멘티들은 각자의 대학원 시절을 저보다 훨씬 훌륭하게 보내고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멘티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재학생들이 사회경험이 부족하거나 어린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런지 모르겠으나, 매년 멘토링을 하면서 대부분의 멘티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실질적 고민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재학생 자신에게 달린 것 같습니다. 동기와 선배 간 무한경쟁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조금 더 자신의 인생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장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시간이 흐른 후 적어도 크게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불필요한 고민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적어도 KAIST MBA를 나왔다면 사회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Top Level에 있다고 여겨지니, 스스로의 내공을 키우는 데 온 정열을 바치기를 바랍니다.

2015

우수 멘토링 팀
인터뷰



김태현 멘티 (금융공학 '15)

Q 멘토링 활동을 통해 얻은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요?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현업의 분위기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 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해주시는 멘토의 조언을 통해 졸업 후 일터에서 인정받는 자세나 행동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평소 보험회사에 관심 있었는데, AIG에서 일하는 멘토 덕분에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개발해 나가야 하는지와 보험 업계의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멘토가 회사 분위기가 맞는지 봐야 한다며 갑작스럽게 멘토의 회사에서 만난 적도 있었는데, 업무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선배로서 학교 수업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도 알려주기도 하고 논문을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도 가이드 해주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기엽 멘티 (금융공학 '15)

Q 멘토링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멘토링 활동을 통해 얻은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요?

석사과정에 재학하면서 지속해서 학교에 다니는 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먼저 학교를 졸업하신 멘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얻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확고하게 다짐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Q 멘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1년이 되지 않는 짧은 멘토링 기간 동안 어느 멘토링 팀보다 많이 만났고, 딱딱한 취업 및 학업 이야기를 떠나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를 통해 멘토와 친분을 쌓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호 멘토는 형식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이 아닌 진정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보여준 진정한 멘토이십니다.

Q 멘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적으로 일적으로도 뛰어난 멘토를 만나게 되어 행운이었습니다. 멘토를 만날 때마다 흥미로운 업무 얘기에서부터 일에서 생기는 재미있는 일화도 말씀해 주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멘토와의 경험을 통해 우리 멘티들도 앞으로 다른 후배에게 선배님 같은 멘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문화체험+정보공유+네트워킹 = KAIST-HR Collaboration Day

문화체험으로 눈 맞추고 다양한 경영 현안과 인사이트를 공유, 네트워킹을 더해 시너지 발휘



KAIST-HR COLLABORATION

무더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불던 지난 2015년 11월 2일, 복합문화공간 Emu에서는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졌다. 벌써 다섯 번째를 맞이한 이번 KAIST-HR Collaboration에서는 유수 기업에서 인재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현직 인사 관계자들이 모여 네트워킹 기회를 갖고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과 최신 연구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전의 모임과 달리 이번 만남은 더욱 특별했는데, 그 이유는 장소에 있다. 복합문화공간에서 주최된 만큼 그동안 다룬 주제들을 복합적으로 살펴보고, 지하에 마련된 갤러리 '바보전'과 인디밴드의 공연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갖는 독특한 경험이었다. 이어 진행된 Dinner &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지중해의 풍미를 머금은 스페인 음식을 즐기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트워킹이 진행되었다. 경영 현안뿐만 아니라 가벼운 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문화 체험, 식사 및 네트워킹을 마치고, KAIST의 다양한 경영자과정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김영걸 대외부학장은 그간 진행되어 온 KAIST 경영자과정의 기업교육사례를 소개하였다. KAIST의 기업 맞춤형 과정의 발자취와 만족도를 공개하며 본교 과정의 수월성과 탁월한 커리큘럼을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실제로 KAIST 경영자과정을 의뢰 및 진행한 기업 관계자의 소감도 직접 들어볼 수 있어 더욱 유익했다. 이어 안재현 책임교수는 최고경영자과정(AIM)을, 윤여선 책임교수는 혁신변화관리과정(AIC)을 소개했다. 각 과정이 현재 경영환경에 왜 필요한지, 각 과정의 탄생 배경, 목표, 구성, 특징점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였는데, 책임교수들의 과정에 대한 자부심도 엿볼 수 있었다. 이어 KAIST Rising Star 교수들의 전공분야별 연구주제 발표시간이 있었다. 마케팅 분야 이찬진 교수, Energy and Climate Policy 분야 엄지용 교수, 조직이론 분야 박상찬 교수가 흥미로운 최신 연구주제를 소개하며 새로운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KAIST-HR Collaboration은 교수-기업 인사담당자의 소통을 확대하고 문화체험을 곁들여 흥미를 더하는 한편, 정보공유와 네트워킹이라는 모임의 본질 또한 놓치지 않는 세심한 구성이 돋보였다.

제2회 서울 기후-에너지 콘퍼런스를 통한 5대 권고안 발표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린빅뱅’을 통한 녹색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할 시기에 도래했다. 이에 맞춰 서울 기후-에너지 콘퍼런스를 통해 새로운 국제 기후 체제 출범과 한국의 전략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가 KAIST 녹색성장대학원과 (사)우리들의 미래를 통해 공동 마련되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제기구 협력 및 탄소가격제 도입, 지자체 역할·비중 확대, 소통 플랫폼 강화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6대 신산업 모델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2조 800억 원 규모의 시장 조성과 1만 2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KAIST 녹색성장대학원(원장 이재규, 세계정보시스템학회 회장)과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이사장 김상협,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의 공동개최로 2015년 11월 20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호텔에서 '제2회 서울 기후-에너지 콘퍼런스 2015'가 개최되었다. 이번 콘퍼런스는 '신기후변화체제'의 논의장인 프랑스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파리총회, COP21)를 열흘 앞두고 열렸다. 'On the Road to Paris and Green Big Bang(파리기후변화 총회와 그린빅뱅)'을 주제로 2020 신기후체제를 향한 협상전망과 대응방향, 녹색산업혁명과 에너지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성공적인 파리 총회를 위한 '5대 권고안'을 발표하여 유엔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개회식 때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어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고 좀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세상을 안착시키기 위하여 전 세계의 에너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세기가 지나기 전 저탄소 에너지원을 통해 현재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를 위해 시스템을 변환하는 작업이 우리의 공동 의무이다."라며, 이번 자리가 에너지 빈곤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위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해 5개 세션을 통하여 '새로운 기후 에너지 시대의 도래', '새로운 국제기후 레짐의 전망', '녹색 경영과 지속 가능한 금융', '녹색 산업 혁명', '녹색기관 경과보고',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재조명 및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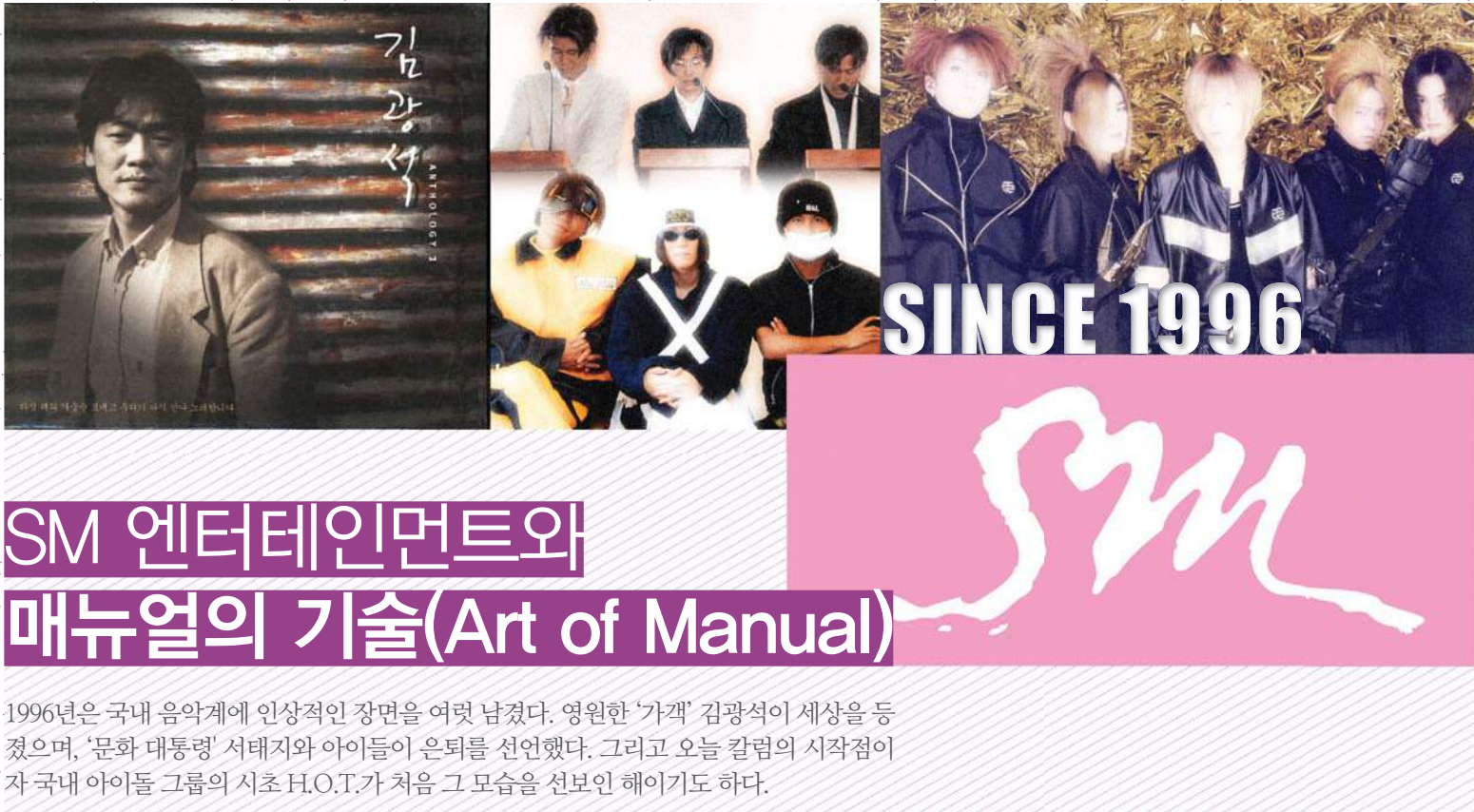
주요 참석자들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실천 노력, 기존의 탄소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또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의장(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각국의 긴밀한 협력,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기술개발과 이전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ADB),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인프라투

자은행(AIB) 등의 국제기구가 언급되며 이들 간의 상호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기후변화는 환경 및 보건뿐 아니라 국제안보와 경제에도 중요하다."며 파리에서 기후협약을 달성하자는 의지를 다졌으며, 원희룡 제주지사는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한 제주 그린빅뱅 전략을 소개했다.

콘퍼런스를 통해 도출한 5대 권고안 내용으로는, (1)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최고수준의 컨트롤 타워 설치와 대통령 및 국가수반 출마자의 10년 단위 미래전략과 기후공약 발표 및 공개검증, (2) 효과적 글로벌 정부수립을 위한 유엔의 노력 및 역할 존중과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강화, (3) 탄소 가격제 도입 방안 강구, (4) 기후변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비중 확대, (5) 기후변화 인식 및 이를 공유하기 위한 소통 플랫폼 강화 등이 담겼다.

이번 서울 기후-에너지 콘퍼런스는 새로운 국제 기후 체제 출범과 한국의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한국 정부도 에너지 6대 신산업 모델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2조 800억 원 규모의 시장 조성과 1만 2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2014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콘퍼런스를 통해 도출한 10대 권고안은 그해 뉴욕에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전달된 바 있으며, 올해도 지구 보호와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기후 정책부터 녹색 경영 전략에 대해 논의된 결과들이 전 세계 기후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수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보고서와 함께 유엔에 전달될 예정이다.

2015 SEOUL
CLIMATE-ENERGY
CONFERENCE



SM 엔터테인먼트와 매뉴얼의 기술(Art of Manual)

1996년은 국내 음악계에 인상적인 장면을 여럿 남겼다. 영원한 ‘가객’ 김광석이 세상을 등졌으며, ‘문화 대통령’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를 선언했다. 그리고 오늘 칼럼의 시작점이자 국내 아이돌 그룹의 시초 H.O.T.가 처음 그 모습을 선보인 해이기도 하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첫 작품 H.O.T., 한류의 물꼬를 트다

이수만 회장은 1995년 SM 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설립하고 새로운 차원의 ‘기획’에 돌입한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미국의 보이그룹 뉴키즈 온더블럭과 그들을 발굴한 모리스 스타의 트레이닝 방식을 롤모델로 삼은 것이 그 첫 단계. 곧 10대 소녀들의 취향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각 구성원의 캐릭터를 구상하고 이에 따라 음악 및 외모의 스타일을 기획했다. 또 어린 나이의 연습생들을 선발, 고강도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기획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리고 1996년 9월, 드디어 H.O.T.가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데뷔곡 ‘전사의 후예’는 의도한 대로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으나 후속곡 ‘캔디’가 큰 성공을 거두며 소녀팬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이후 ‘행복’, ‘We are the future’, ‘빛’ 등의 곡들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H.O.T.는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들의 콘서트 날, 서울 시내의 지하철 운행시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의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다.

2000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린 H.O.T. 콘서트는 중국 사회에도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의 유행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던 시기였지만, 어린 소녀들이 H.O.T.의 숙소와 공연장 앞에서 울부짖는 모습은 중국인들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었다. 중국의 언론들은 이 현상을 ‘한류’라는 활자로 대서특필했으며 이것이 한류의 실질적인 시작점이 되었다. 이렇게 ‘기획형 아이돌’의 시대를 연 SM은 이후 신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엑소 등으로 이어지는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무엇이 다른가?

어느 분야든 그 전과 후를 극명하게 구분짓는 기업들이 있다. 음악산업, 더 넓게는 엔터테인먼트산업 분야에서 그 주인공은 SM과 H.O.T.다. 특별히, H.O.T.의 성공은 새로운 차원의 기획이 ‘의도한 대로 적중’했다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획을 위해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각 앨범의 타이틀곡(1집 ‘전사의 후예’, 2집 ‘늑대와 양’ 등) 흥행이 후속곡 대비 부진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그들의 인기가 온전히 기획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SM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과학적인 트레이닝 및 매니지먼트 시스템 도입, 해외 기획사들과의 활발한 합작, 최초의 코스닥 상장 등 이전의 음악산업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대한 성과의 기반에는 H.O.T.의 데뷔를 준비하던 시기부터 쌓아올린 SM만의 철학이 있다.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문화산업과 같은 고위험-고수익 산업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연과 일회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이수만 회장의 신념에서도 잘 드러난다. 특정 개인의 능력과 기술이 핵심역량이 되는 분야에서는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시키는 핵심 과정을 통해 잠재된 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SM의 철학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활동들을 통해 증명된다.

SM이 도입한 국제협업 시스템 ‘송 캠프(Song Camp)’를 살펴보자. SM은 전



세계 500명 이상의 작곡가 그룹을 운영하며 매일 다른 해외 작곡가들을 서울로 초청해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매년 완성되는 수천 곡과 소속 가수들을 초청하여 새로운 음반을 론칭하는 방식이다. 또 최근에는 매년 유행가 100곡을 모아 가사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각 유행가의 주제와 문제 등을 분석하여 변화 동향을 살피고 “H.O.T.를 듣고 자란 엄마들과 엑소 팬인 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이다.

체계적 시스템에 대한 SM의 신념이 응축된 것이 바로 ‘SM 매뉴얼’이다.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된 ‘SM 매뉴얼’은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매뉴얼이 주요 의사결정 시에 핵심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 매뉴얼들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지식과 잘못된 관행들이 발견되면 그에 따라 꾸준히 보완, 수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노래가 흥행에 성공했다면 그 노래가 성공한 이유를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매뉴얼에 반영하는 식이다. 실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SM 엔터테인먼트와 매뉴얼의 기술

SM의 사업철학은 문화산업, IT산업 등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군 내 플레이어들이 체계적인 시스템과 매뉴얼에 대해 어떤 태도와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첫째,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목적이 없는 매뉴얼은 쓸모없는 정보의 나열이 되어 그 활용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SM의 매뉴얼은 기업의 핵심자산인 음악적 역량과 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2013년에 데뷔한 엑소는 그간 SM의 모든 노하우가 집약된 그룹으로 데뷔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는데, 그룹의 운영 방식이나 곡 선정, 그리고 데뷔 전후의 프로모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매뉴얼 기반으로 기획, 실행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둘째, 매뉴얼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프로세스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매뉴얼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분석은 한 번 실시해 결과를 얻는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꾸준한 시행착오 속에서 점진적으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반복 작업이다. SM의 모든 팀들과 앨범들이 흥행에 성공할 수는 없지만, 각

각의 성공과 실패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것을 매뉴얼, 즉 시스템에 반영한다면 그 다음 순서의 성공 확률은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SM 매뉴얼’도 100%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매뉴얼이 실패의 확률을 낮춰주리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셋째, 매뉴얼은 고객의 관점에서 제작되어야 한다. H.O.T.를 기획하던 시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SM의 모든 관심은 자신들의 아티스트와 음악을 경험할 팬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물론 초기에는 그 방식이 서투르고 비과학적이었겠지만, 10대 소녀들의 니즈를 파악하고자 했던 SM의 시도는 음악산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첫걸음이었다. 최근, 발라드 등 타 장르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돌 멤버들을 위한 소극장 콘서트 ‘디 아지트’나 유망한 연습생들을 미리 선보이는 ‘SM루키즈 쇼’의 런칭은 팬들과의 새로운 접점을 찾고 이를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SM의 또다른 시도다.

SM의 사업철학에서 예상할 수 있다시피 이들은 일치감치 IT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사내의 IT 개발 업무와 서비스를 전담하는 IT서비스사업실의 직원 수는 ‘15년 기준 50명으로 전체 조직의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앞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시스템과 매뉴얼을 중시하는 SM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행은 짧고 매뉴얼은 길다

혹자는 SM의 성공을 이수만 회장 등 핵심인력들의 음악적 감각이 시대적 유행에 편승하여 우연히 빚어낸 결과라 폄하하기도 한다. 그래서 현재의 리더들이 자리를 떠나거나, 유행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 오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회사라는 평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조심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SM이 여러번 넘어질 수는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유행은 짧지만 매뉴얼은 길고 사람은 떠나지만 시스템은 남기 때문이다.

*이수만 회장은 미국 유학 후 귀국하여 1989년 SM기획을 설립하고 첫 소속가수로 현진영을 데뷔시켜 큰 성공을 거두지만, 이후 여러 약재들이 겹치며 큰 손실을 입은 뒤 1995년 SM 엔터테인먼트로 개명하며 아이돌 기획사로 전환시켰다.

KAIST 경영대학 홍보소식지 Frontier 변천사

1997년 가을호를 시작으로 2016년 현재까지 매 분기별 KAIST 경영대학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KAIST 경영대학 홍보 소식지 "Frontier", 20년간 Frontier에 실린 기사를 분석해 보았다.

1997년 이후 Frontier 발행 수

73호



교수 칼럼 횟수

159건

동문 인터뷰

10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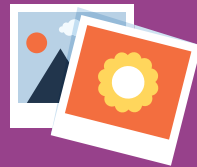
수상자 인터뷰

10건



동아리 소개

10건



특별기고

73건

Frontier
1997
가을호
(1호)
표지

Frontier

8건

캠퍼스 이벤트



전시 안내

8건



가장 많은 기고문을 작성한 교수

TOP 4

- 김영걸 교수 13건
- 이재규 교수 11건
- 배종태 교수 9건
- 이병태 교수 8건

제2회 KAIST 경영대학 2015 Case Competition



2015 KAIST 경영대학 Case Competition 수상팀

대상

“아이리버”
박찬범(IMMBA), 오지석(IMBA),
임정선(IMBA)

우수상

“손오공”
김진수(TMBA), 김현근(TMB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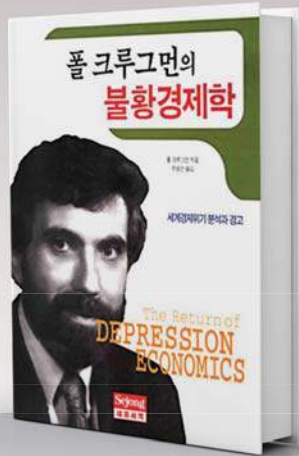
“우아한 형제들”
고성구(TMBA), 정혜승(TMBA),
조형진(TMBA), 박진희(TMBA)



정보미디어MBA의 박찬범, IMBA의 오지석, 임정선 학생이 아이리버 사례를 분석하여 <제2회 KAIST 경영대학 2015 Case Competition>에 참가하여 대상을 수상했다. 경영사례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경영 사례를 발굴하고자, 입학취업지원실의 지원을 받아 2014년부터 KAIST 경영대학 Case Competition을 개최해왔고 올해 2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9월 말부터 9개팀이 출전해 제안서 작성, 사례 작성, 최종 프레젠테이션 등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수상팀을 선정하였다. 예선을 통과한 8개팀이 20분간의 최종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각 지도교수가 평가를 하였다. 사례 연구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국내외 기업의 경영 사례를 발굴해 기업 경영 실무와 이론을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팀원들의 다양한 배경을 통해 전문적 경험과 경영대학에서 습득한 경영자 마인드를 통해 사례학습을 연구하고 기업측면에서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대상에 선정된 아이리버 팀은 2차 선정 발표 때 3위에 머물렀지만, 최종 발표에서 탁월한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발휘하며 당당히 대상에 선정되었다.

8개의 팀들은 모두 바쁜 회사와 학업 일정을 소화해야 했지만 ‘팀워크’를 통해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같이 협력하여 기업이 당면한 경영 상의 여러 문제를 도출하고 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하며 이번 사례연구에서 멋진 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 가을학기에 제3차 KAIST 경영대학 Case Competition이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팀에게 소정의 연구 활동비가 지급될 것이며 대상 수상팀은 해외대회 참가에 대한 지원도 일부 받게 된다. 또한 연구한 사례 결과는 지도 교수의 감수와 경영사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경영대학 사례 연구 시리즈에 포함될 수 있다. 봄학기 수업에서 발표했던 경영 사례를 수정 보완하거나, 가을학기 수강하는 과목에서 사례를 작성해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사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도 많은 학생들의 지원이 기대된다.



폴 크루그먼의 불황경제학

폴 크루그먼
세종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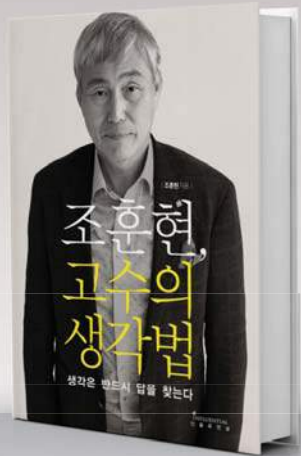
TMBA 윤영진



대륙의 딸

장웅
까치

경영공학 송명진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

조훈현
인플루엔셜

SE MBA 강상균



새로운 미래가 온다

다니엘 핑크
한국경제신문사

녹색경영정책 김경현

“호황”보다는 “불황”이라는 단어가 더 가깝게 느껴진다. 언제부터인가,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낫겠지”라는 사람들의 희망은 갈수록 무색해지고 있다. 작년보다 힘든 올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청년 실업, 가계 부채 증가, 자영업의 몰락 등 다소 유쾌하지 않은 단어들을 신문에서 발견하는 것도 더는 놀랍지 않다. 폴 크루그먼이 <불황경제학>을 출판하였던 1999년부터 약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가 말하는 세계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은 여전히 유효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책은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그 시점에서 시작된다. 이날 이후 18개월 동안, 그동안의 자본주의가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의 외환 위기에 이어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한 데칼라 위기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나비 효과’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사건들이 세계를 위협하였다. 각국의, 그리고 세계의 경제 위기는 다양한 원인과 결과들로 얽혀 있다. 폴 크루그먼은 이 책을 통해 연이은 경제 위기의 핵심적인 문제는 ‘수요 창출’에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는 일본의 통화 증발, 중국의 위안화 유지,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적 신뢰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신뢰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IMF의 지나친 재정적, 구조적인 간섭을 문제시하며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내가 특별히 이 책을 소개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경제 위기를 잘 알고 대처하자는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책에서 폴 크루그먼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단순히 경제학적 지식에만 국한하기보다, 우리 ‘삶에 대한 태도’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쯤은 경제학 서적이 아닌 ‘자기 개발서’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 책을 접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견실한 경제에도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요컨대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이전의 것들이 모두 가짜이며 좋은 것이 아니었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불황경제학, 48p]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든, 나에게서 비롯된 원인이든 지금 당장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때에 흔히 과거를 떠올리며 수년 전 나의 선택을 비난하고, 후회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건강하게 살아온 나의 삶에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과거의 내가 잘못 살아왔거나, 옳지 않은 선택을 했던 것이라 단정하지 말자. 견실한 경제라고 하더라도 캐나다에서 일어난 모든 나비의 날갯짓까지 항상 올바르게 예측할 수는 없었을 테니 말이다.

<대륙의 딸>은 20세기 중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또한 공산당의 합리화된 버전을 따르지 않고 마오쩌둥(毛澤東)을 비판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귀중한 책이다. 게다가 전족(纏足)을 따라야 했던 외할머니부터 시작하여 어머니, 그리고 저자 장웅 자신, 이 세 여성이 중심 인물이 되어 명백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중국 근현대를 그려내었기에 더욱 혁신적이다. 이 책은 왜 중국 사람들이 공산당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또 마오쩌둥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변해갔는지, 대기근의 상황은 얼마나 처참했는지 역사책에서 단 몇 줄로 표현되어 있던 것들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여준다. 또한, 글자만 봐서는 도무지 그 내용을 알기 힘든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의 내용을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 주듯 생생하게 그려낸다. 사상, 이데올로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사상으로 인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쉽게 변하고, 군중이 그에 의해 움직이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 책은 잘 보여주고 있다. 당에 충성하던 아버지가 조반파에 의해 규탄대회에서 처참하게 당하고 또 수용소에 보내져 핍박받는 상황이 되자 저자 자신도 홍위병에 가입하고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 부모와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담담하게 서술한다. 소설책처럼 읽으면 될 듯 하지만 이 책은 마음처럼 그렇게 술술 읽히지 않는다. 손으로는 책을 붙들고 혼자 책의 내용을 생각하며 앉아 있는 시간이 더 길었다. 길을 걸을 때도 이 책의 장면들은 계속해서 내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 요즘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돈의 힘이 사회를 주무르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아직도 중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마오쩌둥 주석의 사진이 아이러니하게도 조화롭게 느껴진다. 마오쩌둥의 정통성에 중국의 역사가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중국은 그를 신격화하고 있는 것인가? 마오쩌둥은 죽어서도 온 국민을 다잡고 뭉치게 할 힘을 지닌 것일까? 이 책은 끝없는 의문을 가슴 속에 품게 만들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할 것이다. 나 역시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남의 시선과 그들의 의견, 조언이 귓가에 남아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남의 이야기와 시선 때문일까?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을 읽으며, 나는 다른 이유를 찾아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남의 시선과 조언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국수(國手) 조훈현 9단은 세계 바둑사의 전설이다. 그는 세계 최다승(1,938승)과 최다 우승(160회)의 기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고수의 생각법이 달콤한 승리의 경험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한집에 살던 자신의 제자 이창호에게 패배하고 타이틀을 모조리 빼앗기는 쓴맛을 보기도 했다. 수천 번의 승리와 패배를 겪고 다시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모든 대국을 복기하면서 그는 자신만의 ‘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류’에 밀려났다. 오르막과 내리막의 과정을 겪어내며 이제 조훈현 9단은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로운 바둑 인생을 살고 있다. ‘열심히’보다 ‘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충분히 노력한다고 꼭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잘’이 아니라 ‘열심히’이다. 수많은 선택, 승부 세계의 고수는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현재까지의 21세기 사회는 정보화 및 자동화 시대, 즉 전형적인 좌뇌형 인간의 시대였다. 분석적, 논리적, 팩트 중심적인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좌뇌형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은 지금까지 고급 직무를 맡고 높은 연봉을 받아왔다. 하지만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이러한 좌뇌 중심 비즈니스는 향후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며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이테크가 평준화된 시대에서 기능적인 가치 뒤에 숨어 있는 감성적 또는 문화·예술적인 가치를 창조해내어 그 제품에 깃든 즐겁고 강렬한 메시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이 커지고 있다. 저자는 ‘하이콘셉트’와 ‘하이터치’라는 개념 아래, 창조적인 메시지와 스토리를 담아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현재, 좌뇌 중심의 세계 질서가 서서히 우뇌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성공 주역이 ‘자식 근로자’였다면 하이콘셉트의 시대에서는 ‘창조적인 근로자’가 주인공인 셈이다.

앞으로 전개될 ‘개념과 감성의 사회’에서 인재가 되려면 양쪽 뇌를 모두 사용하는 새로운 사고의 ‘A whole New Mind’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논리적 사고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하나의 능력이지만 정보가 풍부하고 분석적인 도구가 발전한 현 세계에서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어 유대감을 강화하고, 다른 이를 배려하는 공감 능력이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 이제 그동안 경제논리에서 뒤로 밀렸던 인문학의 감성을 필요로 하는 세상, 감동을 원하는 세상, 아름다움을 찾는 세상, 공감과 조화를 원하는 세상이 미래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새로운 창의적 마인드 즉, 우뇌경쟁력을 가진 감성마인드를 갖추으로써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맞이해야 할 것이다.

경영대학 외부자문위원 연례회의



2015년 12월 1일 화요일, 하얏트 호텔에서 경영대학 외부자문위원 및 대외 협력위원, 학장, 부학장, 대학원장의 경영대학 현황 점검 및 현안을 논의하는 외부자문위원 연례회의가 열렸다. 외부자문위원회는 KAIST 경영대학의 비전 달성을 위한 자문과 협력을 미션으로 하는 조직으로, 이번 회의

에서 앞으로 KAIST 경영대학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EQUIS 재인증을 위한 Peer Review를 하기 위해 경영대학에 방문한 실사단도 만찬에 참여하여 교류했다.

강장구 교수,
한국파생상품학회 학회장 취임



강장구 교수가 2016년 제22회 한국파생상품학회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사)한국파생상품학회는 지난 1991년 창립하여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론 및 실증분석을 비롯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국내·외 학술대회와 정책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연구 성과 발표와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다. 강장구 교수는 2016년

1년간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지속 발전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산학협동 연구 분위기 조성 및 회원 상호 간 학술교류 활성화를 통해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덕빈 교수,
한국경영과학회 학회장 취임



전덕빈 교수가 2016년 제25대 한국경영과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경영과학회는 1976년 창립하여 올해 40년의 역사를 맞이한 학회이다. 이 학회는 과학적 접근에 의한 경영혁신 및 합리화를 연구하며, 현재 3,9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세계경영과학회(IFORS)의 회원으로 연간 8회의 국문학회지 발간, 2회의 영문학회지 발간, 3회의 학술대

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교육훈련, 산학협동 등 다방면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전덕빈 교수는 1년간의 임기 동안 금융산업과의 교류를 통하여 경영과학의 역할을 확대 발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AIST 학생투자펀드 연간 운용보고 및 11기 Fellow 수료식



KAIST 학생투자펀드 연간 운용보고 및 11기 Fellow 수료식이 지난 11월 24일 최종현홀에서 개최되었다. 학생투자펀드(이하 KSIF)는 학생들에게 실제 금융 현장에서의 실습 기회를 주고자 지난 2008년 학교에서 10억 원의 종자돈을 제공하여 출범하였으며, 학생들이 자산운용의 전 과정을 전담하고 있다. KSIF는 전체 자산을 관리하고 시황 및 KSIF 보유 자산을 모니터링하는 투자전략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운용 1~3팀, 그리고 국내 주식 외에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대안투자팀 등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주 단위로 담당 교수와 조교, Fellow들이 회의를 개최하고 철저하게 관리되는 조직으로, 경험을 쌓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금융 모델을 투자전략에 직접 접목시키고 투자 기술을 충분히 연마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팀별 운용 전략 및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울러 13명의 11기 Fellow들의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11, 12기 Fellow를 비롯하여 김동석 KAIST 경영대학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황성택 트러스트자산운용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13기 Fellow 모집은 12월 말에 이뤄진다.

BGS(Beta Gamma Sigma) 증서 수여식



- 행사명: BGS(Beta Gamma Sigma) 증서 수여식
- 일 시: 2015. 10. 22(목) 12:00
- 장 소: 아트리움

BGS는 전 세계 AACSB 인증을 취득한 경영대학의 성적 상위 석사 재학생과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가입 기회가 주어지는 Honor Society로서 160여 개 국가의 550여 개의 경영대학 753,000여명의 평생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KAIST 경영대학은 2004년부터 활동하여 최근 5년간 우수활동을 인정받아서 Exemplary Chapter ('11,'12,'13), Premier Chapter ('14), Honor Chapter ('15)로 선정된 바 있다. 매년 봄, 가을학기 신규 회원을 유치하여 가을학기에 증서수여식을 수행하고 있으며, 박광우 교수에 이어 올해부터 이규석 교수가 Chapter Advisor로 활약 중이다.

제3회 컨설팅 전략기획
동문 모임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복합문화공간 에무에서 KAIST 경영대학 제3회 Consulting 및 전략 기획 직무 동문 모임이 개최되었다. Ernst&Young, 딜로이트, IBM GBS, KPMG, KMAC 등 컨설팅 펌 외에도 현대자동차, SK에너지, LG전자, LG화학, 삼성카드, 효성, 코오롱인더스트리, 현대증권, 미래에셋, KB투자증권, 엔씨소프트, AK 아이에스, 제일기획, CJ, 아모레퍼시픽 등 다양한 기업의 전략 기획 분야에 재직 중인 많은 동문이 참석했으며,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네트워크의 장이 되었다.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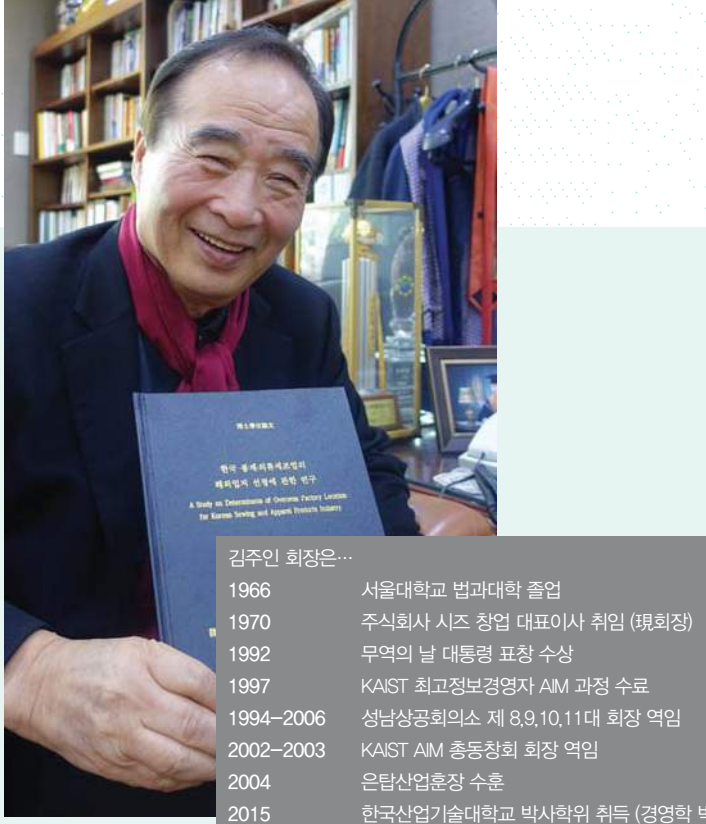
KAIST가 잘 되어야
우리나라가 잘된다!

(주)시즈글로벌 김주인 회장 (KCB 좋아요 10구좌 약정, 1천만 원 기부)

유독 따뜻했던 겨울의 초입을 지나, 제법 칼바람이 부는 겨울 아침, 분당에 위치한 (주)시즈글로벌 회장실을 찾았다. 붉은색 머플러를 멋스럽게 두른 김주인 회장은 지난 45년간 스키, 스노보드 등 겨울용품을 비롯해 아웃도어, 자전거, 모터사이클, 헬스 및 산업용 안전장갑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장갑을 만들어 온 이야기를 술술 풀어 놓으며, KAIST 경영대학과의 인연을 회상하고, 새로운 20년을 응원했다.

Q 스키장갑 제조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인지요?
봉제산업은 80년대에 우리나라를 일으킨 전통산업입니다. 물론 첨단산업도 중요하지만, 전통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키장갑도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국내에서 생산하다가 스리랑카와 중국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스리랑카 내전이 일어나고 손해를 많이 봤지요. 그 이후 베트남 하노이 투자에 성공하자 규모 있게 공장을 짓고 3,000명 가량의 직원을 둔 현지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중 회장님 말씀대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것을 70세 현역으로서 깨닫고 아직도 개척할 분야가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Q 최근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는데, 학문에 뜻을 두고 계셨나요?
저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공부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KAIST에서 최고 경영자과정(AIM)을 개설했을 때도 5기로 가서 공부할 만큼 신지식에 대한 욕망



김주인 회장은...	
196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0	주식회사 시즈 창업 대표이사 취임 (現회장)
1992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1997	KAIST 최고정보경영자 AIM 과정 수료
1994~2006	성남상공회의소 제 8,9,10,11대 회장 역임
2002~2003	KAIST AIM 총동창회 회장 역임
2004	은탐산업훈장 수훈
201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박사학위 취득 (경영학 박사)

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30대 중반, 창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입학 기준에 나이가 못 미쳐 나이를 속이고 등록하기도 했어요.(웃음) 그리고 몇 해 전, 강연 부탁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에 방문했는데 당시 박사학위를 권유받아서 논문을 썼습니다. 저의 사업 경험담을 주로 담았지요. 이것이 제 논문의 주제입니다.(한국 봉제·의류 제조업의 해외 입지 선정에 관한 연구)

Q KAIST 경영대학 기부자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KAIST가 잘 되어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업가는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나라의 산업을 일구고, 또 KAIST에서는 우리나라의 공학과 경영학 분야의 학문 기틀을 잘 닦아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자그마한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매월 기부하는 정기후원이 내가 KAIST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참 뿌듯하고 기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주세요.

작은 보탬으로 연결되는 마음

류혜원 Microsoft Manager 정보미디어 MBA 15학번 (KCB 좋아요 1구좌 약정)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 MBA 15학번 류혜원입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Microsoft에서 Audience Evangelism Manager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척 생소한 직책명인데요, 간단하게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학교생활을 돌아보면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동기분들과 밤늦게까지 조모임을 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소중한 추억입니다.

Q 졸업을 앞두고 기부를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짧은 학교생활이었지만 학교에 대한 애정이 많이 생겼고 성공적인 이직까지 하게 되면서 제가 뭔가 학교에 보탬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이 기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큰 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늘 학교와 이어져 있다는 소속감이 참 좋습니다.

Q KAIST 경영대학이 20살을 맞이하는 2016년을 맞이해 학교와 선배들에게 덕담 부탁드립니다.
20살! 사람에게도 20살은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기이자 도약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KAIST 20주년을 정말 축하합니다. 선배님들 모두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2016년이 되길 바랍니다.

글. 김형진 객원기자 (경영공학 박사과정)

작은 밑알이
큰 거목이 되기를
소망하며장능인 미담장학회 상임이사
(SE MBA 기금 1천만 원 약정)

‘헬조선’. 최근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단어로 헬(He 지옥)과 조선의 합성어이다.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의미가 있다. 청년실업, 주택난, 빈부격차 등이 점차 심화되고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

하지 않고 있음을 냉소적으로 드러내는 신조어이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는 대표적인 문제는 경제 양극화 현상이다. 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로 기화균등과 교육을 들 수 있다. KAIST SEMBA에 재학 중인 장능인(27) 씨는 KAIST 학부 시절 청소년들에게 대학생들이 무료 교과목 수업을 해주는 비영리단체 ‘미담장학회’를 설립해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에 힘써왔다.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수인 현재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으로 인해 기회균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점이 장능인 상임이사가 미담장학회를 설립하게 된 계기였다. 그는 “어려운 사정으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치열한 중등교육을 막 통과한 대학생’들이 도움을 주며 재능을 되돌려 주겠다는 마음이 미담장학회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KAIST를 다니며 양질의 교육 혜택을 받은 만큼 이를 돌려줘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미담 장학회는 2009년 가을 KAIST 강의실에서 첫 수업을 열며 활동을 시작했다. 수학과 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KAIST 재학생들이 멘토로 동참했고, 대상 청소년들은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았다. 기존의 교육봉사가 창의체험 활동이나 실습에 중점을 뒀다면 장이사는 교과목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을 택했다. 입시정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정해진 입시 체제 내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고 이러한 노력이 학생들에게 교육이라는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미담장학회에는 매년 전국의 800여 명의 멘토가 참여하여 4,0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질 높은 수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2016년 장능인 이사는 KAIST 경영대학의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 약정했다. 그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SE MBA 과정, 그리고 KAIST 경영대학의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에 온기를 전달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사회 시스템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작은 밑알이 거목이 되어 열매를 맺듯이 뜻 있는 누군가의 작은 움직임으로 결코 갚 수 없을 것 같던 벼를 무너뜨린 경우는 수없이 많다. 10대의 다윗이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골리앗을 이겼듯이 난세의 작은 영웅은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장능인 이사의 미담장학회와 KAIST 경영대학 구성원들이 이러한 작은 영웅으로 성장해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게 비추기를 희망한다.

기부자 리스트

KAIST 경영대학 기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 1월~2016년 1월)

개인 기부

〈일반 기부〉

주현 EMBA 4기, 김보원 KAIST 경영대학 교수, 한민희 KAIST 경영대학 교수

〈후배사랑 장학금〉

구윤모 TMBA 16기

〈KCB 좋아요 월정액 후원〉

김영걸, 이희석, 한인구, 설순희, 정재민, 오원석, 이인무, 홍인기, 김동석, 배종태, 김주인, 문현경, 김재철, 안재현, 김정완, 한상철, 허필석, 신원준, 심영선, 최서영, 김학기, 조대곤, 이병태, 엄지용, 이재규, 김선희, 전수환, 권오규, 조성형, 신명철, 박광우, 김종창, 박영일, 김정호, 신상희, 문성훈, 임한준, 허순영, 김광선, 이지환, 김영배, 유은진, 마세영, 김민기, 윤미자, 강문영, 이찬진, 김태현, 정나래, 김덕표, 이종열, 김원식, 김학순, 이혜란, 박병호, 주선희, 김행란, 인영환, 이홍열, 이항숙, 이지은, 신재용, 백운석, 김은희, 이인선, 김두현, 박효진, 김상협, 하대일, 박건수, 윤주원, 진병재, 김선권, 이진영, 이재원, 허 준, 류성환, 박상찬, 박성우, 유명희, 홍지중, 김중철, 신스캇, 조남웅, 유승오, 유지찬, 김성욱, 박성훈, 최길재, 공정호, 김영배, 이은영, 이길형, 정지연, 조은정, 양성병, 박기우, 정형주, 최정민, 이재구, 양상근, 이세정, 류혜원, 박설훈, 김동규, 이상원, 김성중, 이재성, 박기준, 염민경, 장인수, 전창근, 김부길, 정순철, 고우화, 윤태호, 이병식, 오성지, 변석중, 강영대, 강기철, 이찬상, 조두희, 장재승, 남욱향, 마민철, 서민채, 박아수

기업 기부

(주)코람코자산신탁, (주)알비동일, 매일유업(주), (주)골프존, (주)세이텍 인터내셔널, (주)시즈글로벌

단체 기부

〈EMBA 10기 일동〉

공정호, 김경준, 김관식, 김기수, 김동윤, 김성욱, 김우재, 김정수, 김중덕, 김진복, 류광택, 박성수, 백상기, 서건기, 서현국, 신스캇, 양영인, 양진하, 오덕수, 우제혁, 유승오, 이선미, 이승우, 이주환, 이창훈, 임상빈, 임상학, 전태현, 정승원, 정현용, 최길재, 최용석

〈AIM 41기〉

고광후, 권소현, 권용환, 권태균, 김장환, 김호상, 노미정, 박석순, 배주천, 석수진, 송미영, 송재순, 시석중, 신상범, 심은희, 이광렬, 이우상, 이철수, 정재원, 채준원, 최민영

〈AIM 42기〉

경계현, 김덕술, 김상환, 김진완, 김학기(주바인테크), 김희수, 남병현, 박영일, 박주원, 송두영, 송영미, 신병호, 양희준, 원용민, 윤정균, 윤준구, 이미라, 이성복, 이양구, 이영진, 이준혁, 임현정, 정보연, 최성호

〈AeG 26기〉

김경태, 김근민, 김남수, 김도균, 김두성, 김세환, 김영갑, 김지영, 김진홍, 박두환, 박상호, 박성용, 박수경, 박재준, 서봉자, 손영조, 손은정, 심은구, 유찬중, 윤영준, 이선성, 이수일, 이승렬, 이시현, 이재호, 이현숙, 임금규, 정진순, 최병철, 한상국, 홍남순, 황규창

〈정보미디어 MBA 6기〉

이상연, 배상훈, 김정훈, 배경룡, 이수진, 한아람, 이선옥, 김지연, 박소연, 박근임, 김기훈, 이종수, 윤진아, 김현돈, 송진형
〈금융전문대학원 동문회 임원단 일동〉
차봉수, 최영진, 이성희, 강영우, 백승훈

KAIST 경영대학의 경영인재 양성을 위한 후원은 언제든지 [우리는행 270-003359-01-005]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관련 문의
대외협력실 정나래 02-958-3082, nrjung@business.kaist.ac.kr